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BUSAN CULTURAL FOUNDATION
ANNUAL REPORT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20

13

20
13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BUSAN CULTURAL FOUNDATION
ANNUAL REPORT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2013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인 남승우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www.bsctf.or.kr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9
기획 및 편집 기획홍보팀
제작 에프스튜디오 611-817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안로 9 지하1층(연산동)
www.f-studio.co.kr T. 051 761 1313
ISBN 978-89-965298-6-6

목차

6	비전과 핵심가치
8	주요연혁
9	조직구성
10	2013년 부산문화재단
	재단 사업 들여다보기
1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32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 진흥
54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72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8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5	국제문화교류 추진
111	위탁운영 및 대외협력
118	재단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비전과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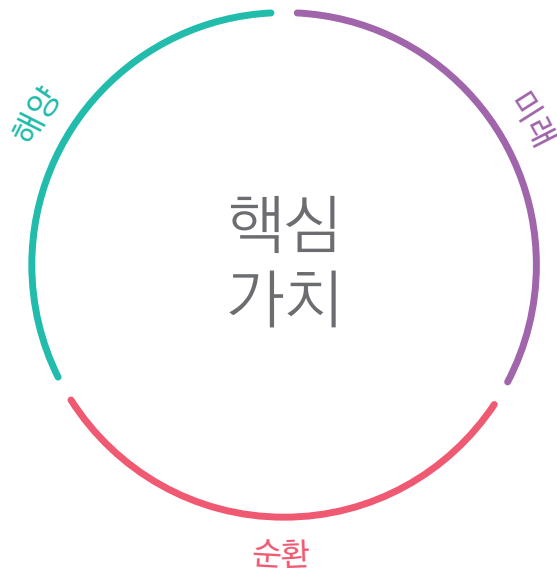
문화예술을 통한 부산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2009년 1월 설립된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지원, 창작기반 조성, 시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부산문화재단은 일상생활이 문화가 되어 생활공간이 예술로 넘치는 도시, 부산 지역 고유의 지리와 역사자원을 살린 해양문화도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충만한 도시 부산을 지향합니다.

해양문화도시 부산을 향한 핵심가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생태와 문화의 공존, 개방과 교류를 통한 다문화 공존을 의미하는 '해양'은 부산을 대표하는 자연물인 동시에 도시의 역사적 성립과 정체성을 뜻하며,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열린 국제교류 도시로서의 개방성, 국제성을 상징합니다.



앞날을 위한 문화역량의 양성을 의미하는 '미래'는 유·무형 전통의 재창조를 통한 '법고창신'의 계기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이끌어 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과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에 근거한 지역 간의 문화교류와 다양성, 미래를 향한 역동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도시재생, 문화 창작과 향유의 순환을 의미하는 '순환'은 시민의 예술 향유 증대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의 창작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술가와 시민, 도시 간의 다양한 연결, 나아가 청년문화와 고령문화의 창조적 순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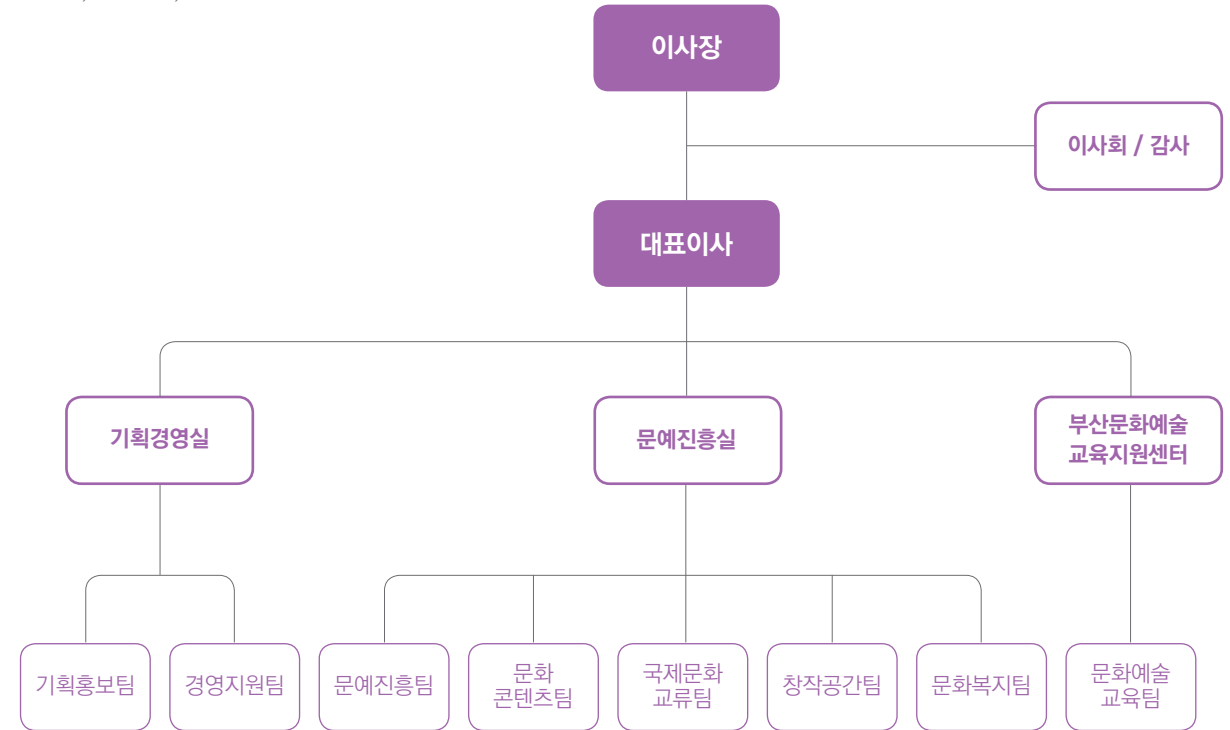
해양	미래	순환
<p>다문화 공생 역량 강화 다문화 공간 조성, 정책적 네트워크 추진, 시민교육 및 축제 개발 지원, 국제민간 문화교류 메카 추진을 통해 부산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발전에 이바지한다.</p>	<p>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자생구조 창출 시민문화동아리 조사·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공간기부뱅크와 개인 기부를 통한 문화기금의 활성화, 시민예술활동 간 접지원의 확대를 시민의 문화예술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창조력과 소통 구조를 확립한다.</p>	<p>문화예술교육과 문화주권 확대 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 문화바우처의 확대와 효율적 시행, 공공 운영시설의 문화 공간화 추진, 부산문화주권 선언으로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와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부산 시민의 문화주권을 확보한다.</p>
<p>도시 정체성을 고려한 예술 창작환경 조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국제예술기획자 네트워크 구축, 친수공간 거리예술 활성화, 국제도시 간 예술교류 사업으로 창작여건 개선과 지역예술의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p>	<p>전통문화와 실험예술 육성, 통섭을 통한 다양성 증진 전통예술의 확산을 비롯하여 실험적 예술, 장르융합과 다원예술,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 문화유산과 도시발전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p>	<p>창작과 소통의 유기적 순환을 통한 예술기반 확대 문화예술 매개 전문가의 활동 지원, 문화예술 이론과 담론의 활성화를 통해 예술 창작과 향유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예술 창작의 활성화와 예술기반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p>
<p>해양도시 디자인과 해양문화 콘텐츠 육성 해양도시의 역사와 환경에 걸맞은 도시 디자인 체계화, 해양문화 콘텐츠 육성과 해양문화축제의 활성화, 동남권 중심 국제문화연결망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과 발전에 이바지한다.</p>	<p>예술창작, 레지던스 공간 조성 지역의 예술적 역량 강화와 국제교류의 증진, 도시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과 도심 레지던스 공간 기초 조성, 도심 속 문화예술지구 조성으로 창조도시의 기초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의 역량과 다양성 확산에 이바지한다.</p>	<p>도시재생과 예술진흥 연계 공공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지역의 인문·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커뮤니티 아트 공간의 확대, 지역문화시설 활성화로 공공예술의 범위 확대를 통해 도시재생과 시민의 예술 창작과 향유를 증대한다.</p>

주요연혁

2013	11월	감만창의문화촌 개관(11.20)
	10월	홍티아트센터 개관(10.30) 사무실 이전(감만동)
	7월	감만창의문화촌 위탁 체결 사상인디스테이션,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개관(7.12)
	5월	홍티아트센터 위탁 체결
	2월	조직개편(2실 1센터 7팀 ▶ 2실 1센터 8팀)
2012	10월	부산문화재단 CI 2012년 우수디자인(GD) 선정 및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6월	조직개편(2실 1센터 6팀 ▶ 2실 1센터 7팀)
	1월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및 CI 선포식
2011	12월	부산문화재단 2020 비전 수립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개선
	6월	선임직 이사 15명 교체
	2월	제2대 남승우 대표이사 취임 조직개편(3부 2팀 ▶ 2실 1센터 6팀)
2010	5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4월	조선통신사 업무 위탁
2009	3월	창립기념식
	2월	직원임용(사무처장1, 팀장1, 직원3)
	1월	창립총회 법인설립허가(부산광역시 1.14) 법인등기(동원자원 1.21) 제1대 강남주 대표이사 취임
	12월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
	11월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포 발기인대회 개최 및 정관제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2008	8월	의견수렴결과 반영 설립세부계획 수립(부산광역시)
	4~6월	운영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언론 등 의견수렴
	4월	부산문화재단 설립방침 결정(부산광역시)
	2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립(안) 보고
	12월	문화재단 설립관련 타시도 행정기관 벤치마킹
2007	12월	문화재단 설립관련 타시도 행정기관 벤치마킹

조직구성

이사회, 대표이사, 2실 1센터 8팀



위탁운영 시설



조선통신사 역사관
동구 범일동
위탁체결일 : 2011.4.26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구 괘법동
위탁체결일 : 201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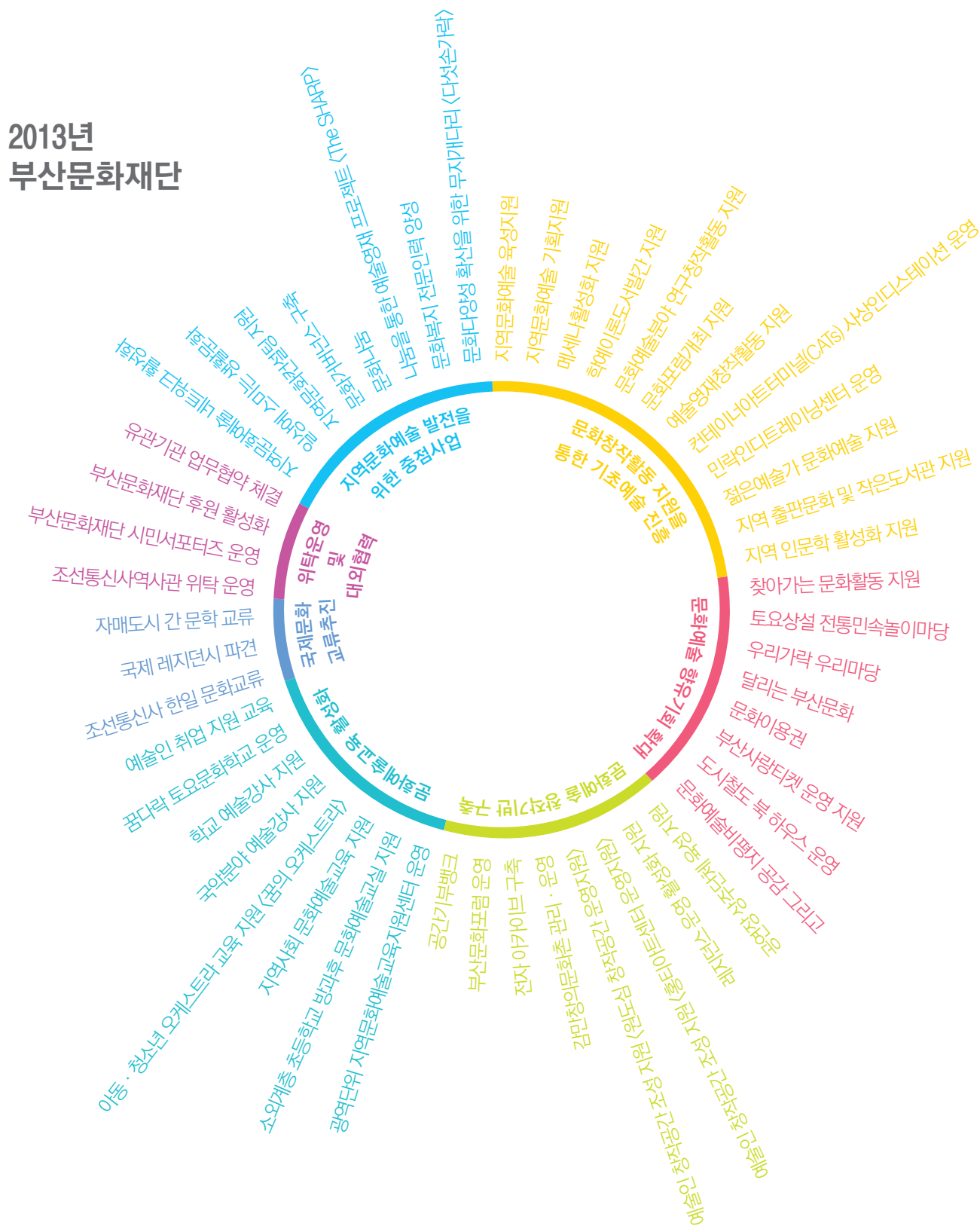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다대동
위탁체결일 : 2013.5.8



감만창의문화촌
남구 감만동(舊동천초교)
위탁체결일 : 2013.7.17

2013년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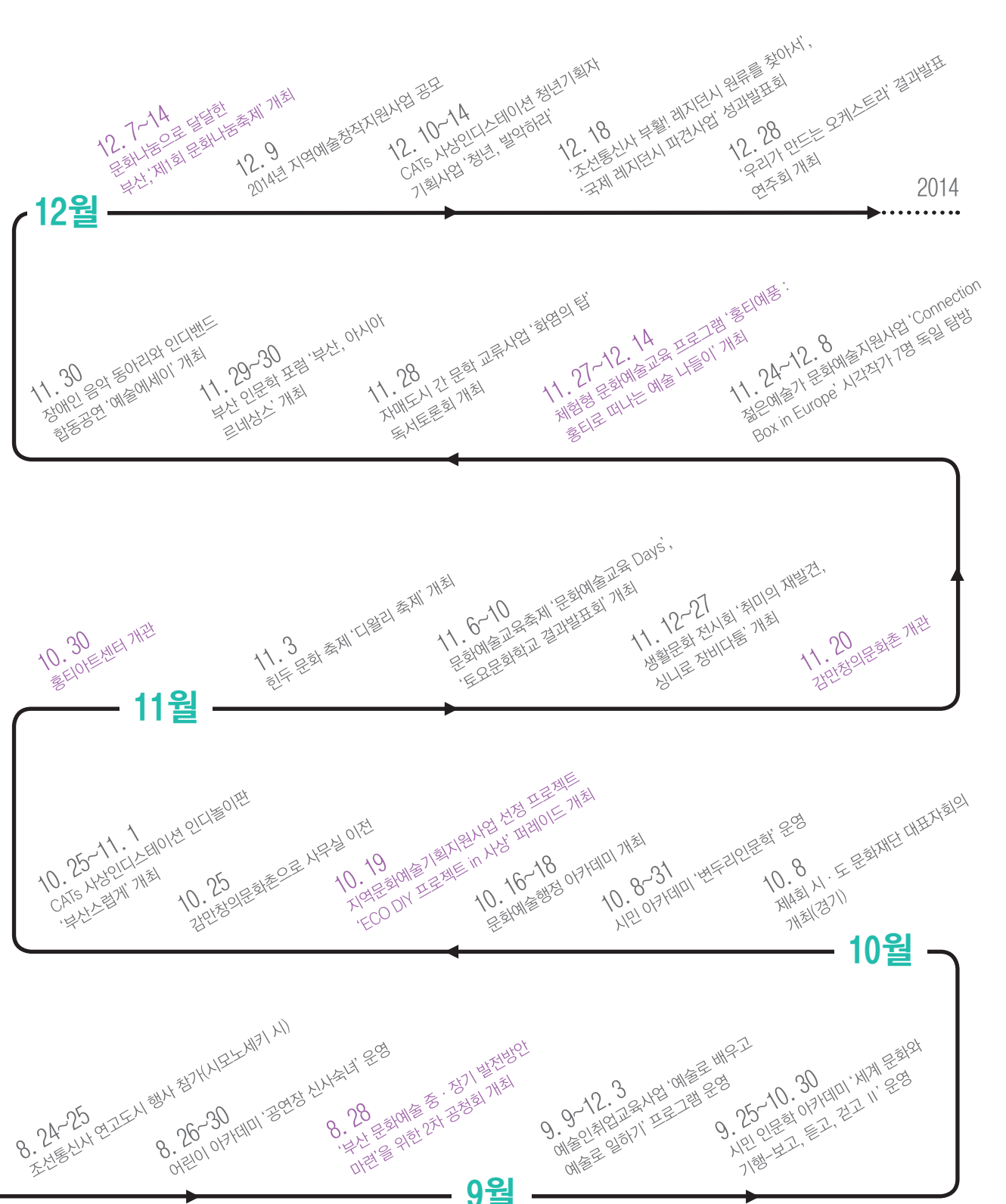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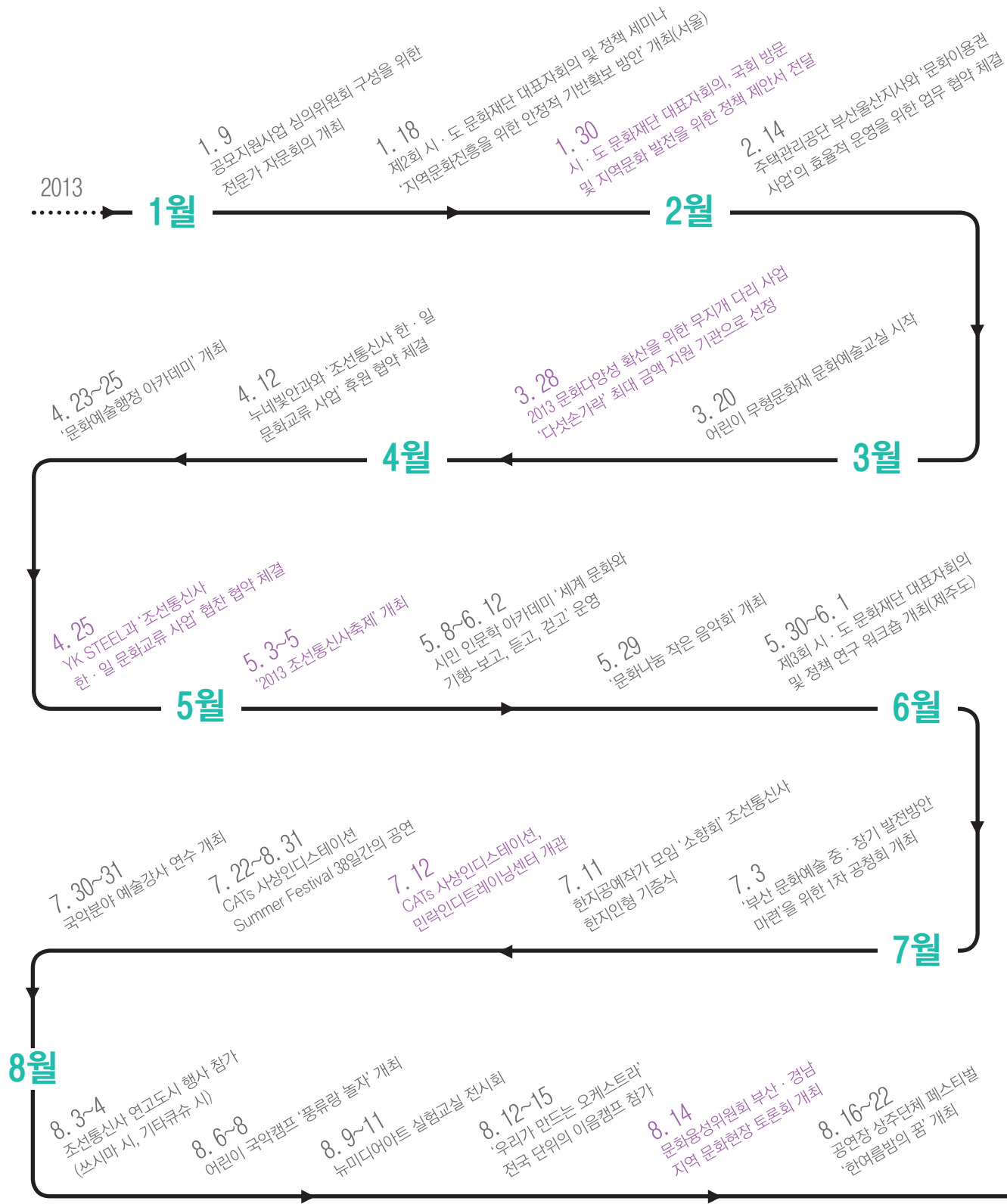
2013년, 지역문화 분권의 실현과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12년 부산에서 결성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간사기관으로 활동하며, 12개 시·도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주권 확보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결과, 2013년 말 지역문화진흥법 통과라는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일상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문화나눔사업을 본격화하여 문화나눔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나눔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 1위 선정에 이어 2013년에도 최대 지원금을 받은 '다섯손가락' 사업을 통해 이주민 모임과 다양한 단체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인디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와 사상인디스테이션, 설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인 홍티아트센터 개관으로 부산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폐교였던 동천초등학교를 단장하여 마련한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이전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전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문화예술교육 데이', '어린이 아카데미'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한편 전년도 대비 20%가량 증가한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공모 심의위원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더욱 많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이 문화예술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한·일 양국 간의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도 2013년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학술 행사와 닥종이 인형 전시 등을 개최하여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0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문화거버넌스 구축

문화나눔

나눔을 통한 예술영재 프로젝트 <The SHAR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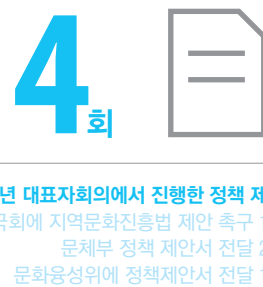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01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개방과 교류의 해양문화 특징을 가진 부산, 2013년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의 거점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12년 10월 전국 12개 광역 시·도 문화재단 협의체인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부산에서 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간사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향식 문화정책 제안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3년 12월 31일 지역문화진흥법 국회통과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 문체부, 문화융성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정책 제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정책 제안

- 지역문화재단들이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지역문화재단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역문화재단들이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문화행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의견 전달

-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자치'를 지향하는, '지역문화분권' 기초를 본 법의 목적 및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자원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 자치 역량 강화와 문화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 방식 등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지역문화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실행 주체인 시·도 문화재단들의 대표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결정토록 명시해야 한다.
- 지역문화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문화분권 및 거버넌스 원리에 반할 위험 요소가 있는 '한국지역문화진흥원' 설립은 불필요하다.
- 지역문화재단이 전문성을 살려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명시해야 한다.
- 문화기관들이 문화행정의 특성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 지역의 문화도시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선정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8개 권역별 문화융성 현장 토론회 결과에 제4차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8개 항목의 정책을 문화융성위원회에 제안

- 지역 문화융성을 통한 국가 문화융성 실현을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국가 문화정책 결정 시 지역의 문화정책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역문화 융성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들의 법적 위상을 명시해야 한다.
- 지역 맞춤형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
- 문화이용권 기획프로그램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보편적 문화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 예술창작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예술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융성 자원 확보 및 지역의 문화자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참여 기관



02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2013년,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 발굴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시민문화 커뮤니티 중심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시민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본격화하여 그 결과,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지역사회 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개의 커뮤니티 거점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적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결과 발표와 사회공헌 행사를 통해 성취감을 고취하여 활동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2013년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한 부산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2013년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사업을 통해 발굴한 부산 지역 동아리



부산 지역 문화예술 커뮤니티 지원

7개 문화예술 커뮤니티(아마존, 그림책 포럼, 문화공간 숲, 경기민요예술단, 반여2동 새마을 작은 도서관, 사상문화원, 아지맘)를 선정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공간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구분	세부 지원 내용
네트워크 지원	· 네트워크 추진 행사비
활동공간 사업비 지원	· 연습, 발표, 정기경연대회 사업비 · 공연장, 무대, 회의장 등 임차료, 각종 장비 임차료 (공연행사소품 및 의상 등) · 공연 및 연습 부대용품, 소모품 구입비
매개자 연결 지원	· 동호회 교육, 교재제작보급, 강사비 등 · 문화예술 기획자에 의한 커뮤니티 아츠 사업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 참여 지원	· 축제 행사 등 단체연습비용, 행사참여경비
홍보비 지원	· 각종 홍보물 제작 등

부산 지역 동아리 발굴 및 조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805개를 발굴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관	구체적 대상	1차 조사 결과(개)	최종 동아리 수(개)
행정기관	구청	16	214
	주민자치센터	210	
	기타 기관 등	5	
교육기관	초등학교	298	282
	중학교	165	
	고등학교	155	
	대학교	22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61	49
공공문화시설	문화원	26	119
	미술관	46	
	문화회관	8	
	도서관	148	
사설문화시설	평생학습관	61	6
	백화점	10	
	대형마트	20	
사설기관	기타	3	12
	학원	5,124	
	아파트	561	
기타	문화예술단체	48	123
	종교단체	1,716	
	종합병원	34	

	동아리(개)	비율(%)	동아리 평균 회원(명)
음악	187	23.2	24.3
공연	31	3.9	24.6
미술	65	8.1	18.2
독서/인문	75	9.3	21.1
사진/영상/미디어	28	3.5	40.9
무용/댄스	106	13.2	20.1
생활문화/취미	75	9.3	27.6
학습/어학	65	8.1	19.5
종교/봉사	161	20.0	25.7
교육/생태	12	1.5	24.7



부산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를 분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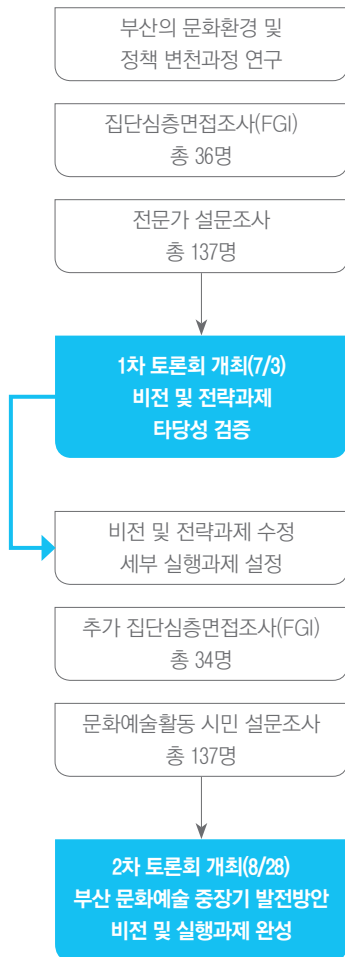
- 동호회 모임의 성격은 오프라인 경향이 강하며, 학교 학생들의 모임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동호회의 성격은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중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생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동호회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될 경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교류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 부산 지역의 동호회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는 약 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 응답은 37.3%였다.
- 동호회의 연령대는 학교의 경우 20대 중심이 많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적 동호회의 경우 50대 중심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동호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호회의 정기 모임은 주 1회 이상 모인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용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18.3%를 차지했다.
- 전용 공간의 구성으로는 연습 및 작업 공간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용 공간이 생길 경우 소속된 동호회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호회의 운영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년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동호회 운영 비용에 대해 절반 이상의 동호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03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국내의 새롭게 변화하는 문화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부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 문화예술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 제언을 위해 부산 문화예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부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 문화의 핵심가치인 개방과 교류의 '해양', 재생과 창조의 '순환', 실험과 도전의 '미래'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안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전략과제별 추진시기와 추진방안, 문화전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과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진행한 집단심층면접조사(FGI)



집단심층면접조사(FGI)에 참여한 문화예술 전문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문화예술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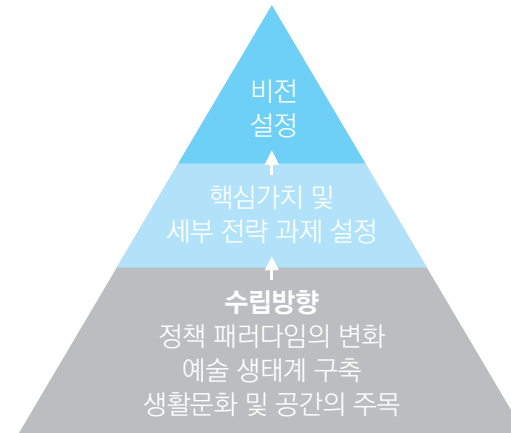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한 문화예술 동호회, 동아리원



조사 과정과 방안 공유를 위해 개최한 공개 토론회

<부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방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술 생태계 구축

지원 정책의 다변화를 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간접비 지원, 예술인 복지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술 생태계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및 공간의 주목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생활 근접형 문화시설 조성 및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부산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을 적극 발굴·개발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핵심가치 및 세부전략과제 제시

해양 : 개방과 교류, 생명의 해양문화도시	
해양문화콘텐츠 및 생태문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해양문화 콘텐츠 육성 부산만의 자연생태문화자원 발굴
지역 및 해외 문화 예술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및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활성화 상하이, 요코하마 등 아시아 문화도시 협의체 구성 민간 문화교류 허브센터 설립
야외문화공간 및 거리문화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야외 문화공간 활성화 축제의 일상화, 참여와 연계

미래 : 실험과 융합, 상상력의 미래문화도시	
문화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원 강화 다문화매개자 양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실행
문화예술인 복지 및 창작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육성 문화예술 창작기반 및 지원 체계 개선 민간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다원예술, 청년문화 지원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예술가와 청년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융복합창작활동 집중 지원

순환 : 전통과 현대, 창작과 향유의 문화공유도시	
시민의 문화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문화 동아리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구축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착 문화매개 인력 양성을 통한 부산형 문화창작·소비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에 기반을 둔 인문학 실뿌리 구축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
전통의 현대적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 조사와 발굴 일상 속 전통문화 콘텐츠 활용 확대

04 문화거버넌스 구축

부산문화재단, 시민, 예술인이 함께 만나는 장을 만들어 갑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민의 향유 현황과 욕구를 연구 조사하여 이를 부산문화재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재단의 감만창의 문화촌 이전과 함께 대외협력 차원에서 지역주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2013 사업 평가 및 2014 사업계획 워크숍'을 통해 부산문화재단의 정책과 사업을 재단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문화예술가와 함께 부산의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의 대외홍보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05 문화나눔

353만 부산 시민 모두가 문화나눔으로 달달해지는 그날까지 달달한벌집이 함께 달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문화나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기부를 활성화하는 문화나눔사업 <달달한벌집>을 펼쳐 부산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문화나눔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티켓나눔으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를 무료로 관람한 관객



제1회 문화나눔축제 책나눔 참여



2013년 티켓나눔을 통한 관람 티켓 비용 환산 총액



2013년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벌무리>



2013년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벌무리> 시간나눔 참여 시간

문화나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관련 재능·공간·티켓·시간·현물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확산을 위해 온라인상의 매개시스템(홈페이지, 페이스북)을 구축하여 문화나눔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문화나눔이 필요한 시민 간의 매개 역할을 지원하였다.

문화나눔 캠페인 <2013 문화나눔 작은 음악회>

5월 29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예술영재 조민혁(양운초 5년) 군과 부산시립예술단원의 재능나눔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벌무리>

시민과의 소통을 확산하기 위해 40명의 지원인력을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매달 2~3차례의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문화나눔 커뮤니티 5곳의 활동 제반 요소 지원

초등학교 대상 미술교육 커뮤니티 'SPNT art' 재능나눔,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퍼니미라클' 재능나눔 벽화 작업, 대학생 문화나눔 공동체 '소울' 노인 대상 공연 재능나눔, 이주민 여성 연극 동아리 '문화소통연대이야기' 재능나눔 공연 <다정다감 엄마나라이야기>, 문화소외계층 대상 <극단금샘> 재능나눔 공연 및 교육, 연극 <호랑이아줌마>, <배비장전>, 강좌 <나도 배우다> 운영 등 문화나눔 활동 제반요소 지원을 통해 문화나눔의 기반을 확산하였다.

유관기관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재능기부 협약(5.29), 부산금관학교 운영을 위한 협약(1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 관련 협약(11.21)을 통해 문화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나눔사업의 가능성을 찾아나갔다.

제1회 문화나눔축제, 한 달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로 시민 주도형 문화나눔 실현(11.16~12.14)

재능나눔, 공간나눔, 책나눔 등 다양한 기관과 시민, 예술인의 참여를 통해 문화나눔 디자인 워크숍 <나도 달달한 디자이너>, 재능나눔 음악회 <달달한 무대>, 문화나눔 사례공모전 <우리들의 달달한 이야기>, 문화나눔 명사 특강 <너를 위한 노래>, 우리동네 책나눔, 문화나눔 포럼 <문화나눔으로 달달한 부산>, 문화나눔 토크콘서트 <달달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문화나눔 홍보대사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위촉(12.14)

다양한 곳에서 문화나눔을 실천해 온 재즈피아니스트 진보라 씨를 문화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2014년에는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과 문화나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선택이 최고였다고, 이런 공연을 보게 될 줄 몰랐다고요. 평소 저희 형편으로 소극장 공연 관람은 꿈도 못 꿀 이야기였는데, 아이들과 저희 부부에게 정말 한여름밤의 꿈같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티켓나눔으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가족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티켓나눔으로 코믹쇼 <바라바라> 관람(권○○, 40대) '티켓나눔' 수혜자 후기 중 발췌

06

나눔을 통한 예술영재 프로젝트 <The SHARP>

“민혁아, 새 바이올린 받고 ‘거장의 꿈’ 이루렴.”
기부금을 통한 문화나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던 조민혁(양운초 5년) 군은 부산시의회 송순임 의원의 의정비 기부를 통해 세계적인 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김민성 명장의 손길이 담긴 새 바이올린을 받아 앞으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민혁이가 앞으로도 꾸준히 거장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문화나눔에 동참한 각계의 관심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20,000,000 원 

조민혁 군이 받은 바이올린 제작비로 쓰인 기부금

400 명 

조민혁 군의 재능나눔 연주를 관람한 시민

문화나눔 캠페인 <2013 문화나눔 작은 음악회>

5월 29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서 조민혁 군에게 개인 기부금 2천만 원과 세계적인 악기 제작 장인의 재능나눔으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전달하고, 부산시립예술단원의 재능나눔 축하 공연과 문화나눔 협력 지원 협약 체결로 문화나눔의 의미를 공유하였다.

<제1회 문화나눔축제> 재능나눔

12월 7일 문화나눔축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나눔 포럼’의 오프닝에 조민혁 군이 재능나눔 연주를 선보여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민혁이가 바이올린 거장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문화나눔’에 동참한 각계의 관심 덕분입니다.”
조민혁 母
부산일보 인터뷰(2013.5.2) 중 발췌

07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부산이 문화복지 현장 매개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부산은 2012년 전국 최초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범 지역에 선정되어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에 이어 2013년에는 총 15명의 현장 인력을 지자체에 배치하여 지역 곳곳에서 문화복지 관련 정책 안내와 문화소외계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이용권 발급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자치구별 문화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문화카드 발급률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발굴한 문화소외계층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진행한 현장 모니터링



2013년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진행한 문화카드 가맹점 관리



2013년 부산 지역에 배치된 문화복지 전문인력



금정구에서 개최한 문화복지포럼



문화이용권 사업의 효율적 집행

문화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이용권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서구·남구·기장군·중구·사상구·부산진구·서구 등에서 문자발송 및 전화, 대면 홍보, 신규 가맹점 발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와 관리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임대 아파트 안내 방송, 지역별 구보와 방문을 통한 홍보와 현장 및 가맹점 모니터링, 직접 찾아가는 이동서점과 영화관람권 구매 대행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문화카드 발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문화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활동

사회복지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의 기관과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발굴하였으며, 101건의 다양한 개별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펼치는 한편 지역 내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15건의 소외계층 창작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과 예술가 발굴을 연계하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펼쳤다.

타 영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 활성화

금정구 문화복지 포럼(3회)과 금정구 문화복지 네트워크 <금정, 문화로망>을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단체와 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연계하였다.

“시를 배웠더니 하고 싶은 말이 태산처럼 많아졌다.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이 빠르게 달려온다.”

북구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기획·진행한 <할머니 꽃이 피었습니다>에 참가한 김미자 할머니 2013. 11. 18(월) <부산일보> 인터뷰 중 발췌

“전문 밴드와 함께 연주하니 반주 음악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풍부한 음량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금정구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기획·진행한 <예술 에세이>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밴드 '소나기' 멤버 2013. 12. 02(월) <부산일보> 인터뷰 중 발췌

08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다섯손가락>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대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선주민의 문화수용력 향상, 이주민의 모국 문화 표현 및 역량 발휘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활동을 통해 부산 지역 곳곳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적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다섯손가락> 사업에 참여한 이주민과 선주민 이주민 47,744명, 선주민 20,415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1회당 기록된 다운로드



2013년 <다섯손가락> 사업을 통해 조사한 부산시 이주민 문화공간



2013년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된 힌두 문화권 축제

사상인디스테이션 내 '카페 무지개' 운영

부산의 문화다양성 3대 키워드인 '일상, 공간, 예술'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인디스테이션 내 '카페 무지개'를 마련하여 주말까지 운영하고, 사상인디스테이션 동아리실과 공연장을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모국어를 이용한 정보 전달을 위해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운영

2012년부터 운영해온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를 2013년에는 25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청취하는 팟캐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산 지역 이주민 문화공간 조사

부산에 있는 이주민 문화공간 72곳을 발굴하고, 공간 운영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공간 활성화 네트워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 최초로 소수 문화권 특징을 살린 <디왈리 축제> 개최

11월 3일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이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선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디왈리 축제>를 개최하여 무지개다리 사업을 많은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후 타 이주민 커뮤니티의 축제 참여 요청이 증가하였다.

이주민의 자발적인 활동과 선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아시아 여행자 학교> 프로그램은 회당 100여 명(이주민 70%, 선주민 30%)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이주민이 직접 해당 문화권에 대한 소개를 기획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미안마 기타 동아리 등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이주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선주민들이 축구·영화제작·방송·기획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6년간 외국인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지만, 문화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산에서 발견했다.”

수베디여거라즈(김해 이주민의 집 대표) <2013 문화다양성 공유 포럼> 중



02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 진흥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 메세나활성화 지원
-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
-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
- 문화포럼개최 지원
-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
- 컨테이너아트터미널(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 젊은예술가 문화예술 지원
-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원

09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지역 최대 규모의 공모지원사업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예산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 시민 아마추어 단체와 동호회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44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예술단체와 개인,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집필(문학), 시각예술(미술, 영상·사진),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 국악), 생활문화(생활예술, 문화매개), 실험적 창의예술(다원예술, 청년예술가), 국제교류(국제예술교류) 등 6개 영역 13개 분야에 걸쳐 총 44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2년 사업예산 대비 4억 원(22%)이 증가한 총 21억 9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예산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971 건

2013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접수된 사업
7,488,730,000원

454 건

2013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심사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
2,100,000,000원

44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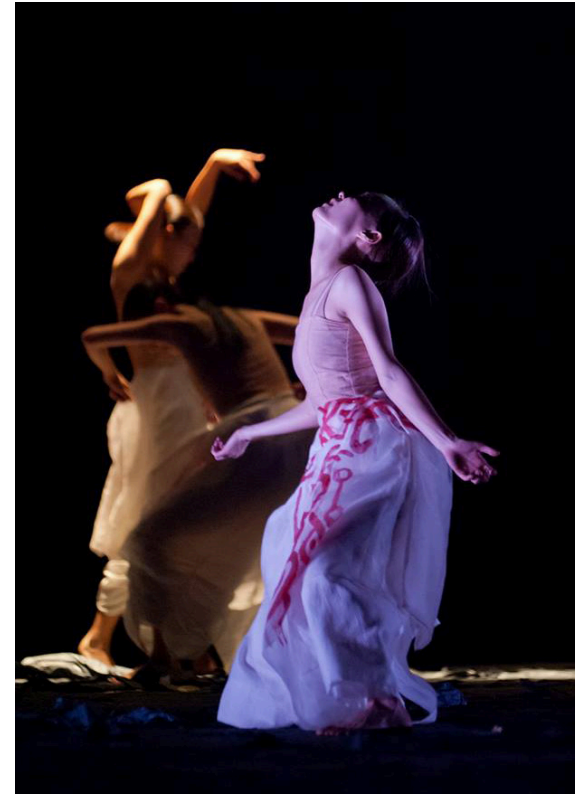
2013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이 최종 지원한 사업(포기사업 제외)
2,076,000,000원

41%

2012년 대비 2013년 지원신청 증가
및 지원 수혜자 증가율

22%

2012년 대비 2013년 사업예산 증가율



지원내용

영역	분야	지원결정 금액(천원)	최종지원 금액(천원)	최초 선정 건수	최종 지원 건수
창작집필활동	문학	321,000	321,000	98	98
	미술	345,000	342,000	88	87
시각예술활동	영상·사진	85,000	77,000	19	17
	음악	326,000	323,000	61	60
공연예술활동	연극	207,000	207,000	25	25
	무용	202,500	202,500	24	24
	전통	98,000	98,000	22	22
	국악	111,000	111,000	24	24
생활문화활동	생활예술	56,000	55,000	26	25
	문화매개	68,500	68,500	15	15
실험적 창의예술활동	다원예술	57,000	57,000	10	10
	청년예술가	139,000	130,000	34	32
국제교류활동	국제예술교류	84,000	84,000	8	8
합계		2,100,000	2,076,000	454	447

10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

전국에서 단위사업 당 가장 큰 규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택과 집중으로 전격 지원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주제로 중점지원을 해온지 3년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 첫째 선두주자였던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대표 류성효)'를 중심으로 부산의 많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예술가들이 <부산희춘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부산의 문화와 젊은 인력들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발전을 다짐하는 신호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광안리 사람들(대표 이승욱)'이 <청년문화수도프로젝트>로 '광안리 사운드 웨이브 페스티벌', '그래피티 부산', '청년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부산 청년문화의 또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이은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공공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2013년에는 2011년과 2012년 각 프로젝트에서 연대적인 참여와 협력관계를 지속해온 '부산노리단(대표 안석희)'이 선정되어 <ECO DIY 프로젝트 in 사상>으로 시민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190,000,000 원

2013년 '부산노리단(대표 안석희)'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 지원 금액

30,500 명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 총 관람객

81 개

'에코 DIY 워크숍' 개별 프로그램

49 명

'에코 DIY 워크숍'과 '에코 뮤직숍 워크숍'에 참여한 작가

29 명

'에코 뮤직숍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제작단과 공연단

부산문화재단이 지난 3년간 지원한 공공예술프로젝트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

부산노리단(대표 안석희)이 사상 지역 일대에서 진행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에코 DIY 워크숍', '에코 DIY 뮤직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상'이라는 키워드 아래 제작·기술·신체활동·음악·미술·퍼포먼스·독립잡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1개 프로그램으로 10차례 진행된 '에코 DIY 워크숍'에는 45명의 작가와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에코 DIY 뮤직숍'은 직육면체의 컨테이너를 자르고 붙여 악기와 연주무대의 역할까지 하는 배 모양의 이동형 주크박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호주 허벌스튜디오의 생태주의 악기 개발자인 스티브 랭턴의 감독하에 사상 일대의 기술자, 동서대와 신라대 학생, 지역 예술가와 일반 시민이 직접 수작업을 진행하였다.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에코 뮤직숍 프로젝트는 10월 19일 사상구 괘법동 르네시떼 앞 광장에서 진행된 퍼레이드에서 시민연주단과 부산노리단 단원이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2013년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또래와 친환경 시민참여형 연주에 참가하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다.”

'에코 DIY 뮤직숍' 대학생 참가자
박은정(부산대 아동가족학과 4년)
국제신문 인터뷰(2013.10.15) 중 발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함께 문화와 예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다. 벌써 끝나는 것이 아쉽다.”

'에코 DIY 뮤직숍' 대학생 참가자
이동조(부산외대 경영학부 4년)
국제신문 인터뷰(2013.10.15) 중 발췌

11 메세나활성화 지원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꽃피웁니다.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총 36개 단체와 38개 기업을 매칭하여 3억 1천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업체에는 메세나 인증패를 전달하고 임직원에게 메세나 티켓을 발송하는 ‘조용한 예우’를 통해 기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언론홍보와 후원행사를 통해 기부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여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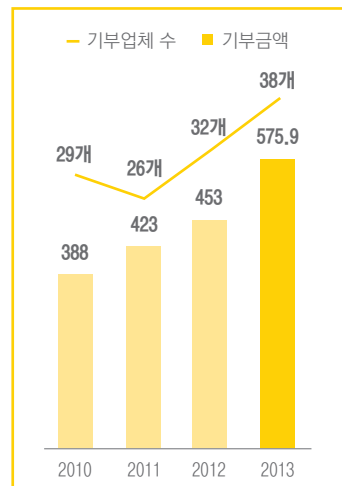
36개

2013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

312,600,000 원

2013년 <메세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

연간 지원 성과 단위 : 십만 원



기부업체에 대한 예우활동 다각화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기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단체 홍보를 위한 메세나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500개 기업에 발송하였다. 메세나 후원 기업에는 메세나 인증패를 수여하고, 임직원에게 메세나 공연·전시티켓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기업브랜드 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 지원과 후원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각화된 예우활동으로 기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12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

부산 지역 학술·예술인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지원하여 10건의 학예이론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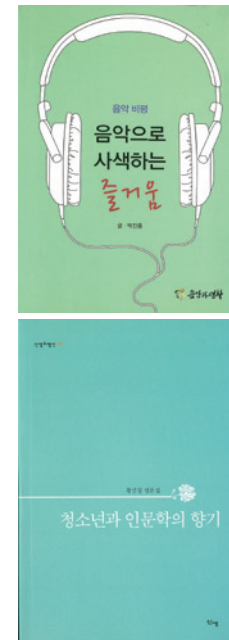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은 부산 지역 학술·예술인들의 연구영역 확대와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이론·비평도서 발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7건 중 최종 선정된 10건에 대해 4천9백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학예이론 도서가 발간되었습니다.

10건

2013년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으로 발간된 학예이론도서

49,000,000 원

2013년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



2013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 발간 도서

- 『해양풍경』 구모룡
- 『라디오시대의 서막, 라디오서사와 문화』 최미진
- 『색으로 느끼는 감성, 색으로 여는 세상』 신현경
- 『박물관 이론과 정책-부산 지역 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 이명진
- 『글로컬리즘과 독일문화논쟁』 장희권
- 『후쿠오카와 부산의 비교공간학』 박훈하
- 『공공미술-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구본호
- 『음악비평, 사색하는 음악 감상의 즐거움』 박진홍
- 『청소년과 인문학의 향기』 황선열
- 『문학번역 : 비교문학 컨텍스트의 실천과 이론』 김승숙

13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문화예술가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연구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창작과 발전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들이 자유로운 연구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9개 분야의 연구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2013년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

부문	성명	소속 · 직위
인문과학	서치상	부산대학교 교수
자연과학	강신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지역연합회장
문학	강영환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 이사
공연예술	최은희	경성대학교 교수
시각예술	서상환	서양화가
전통예술	김귀엽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전협회 이사장
대중예술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 원장
체육	신순철	(사)부산체육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언론 · 출판	김영일	(주)KNN 상무이사

14 문화포럼개최 지원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의
문화포럼 개최를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포럼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예창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 문화포럼 참석자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 문화포럼 개최에 지원한 금액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의 문화포럼

8월 29일 개최된 제23차 '부산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럼' <부산의 화교와 차이나타운 축제>와 12월 5일 개최된 제24차 '부산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포럼' <이름으로 보는 금정산>을 통해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15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

미래 부산 문화예술의 희망인 예술영재의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부산의 우수한 예술영재가 부산 문화예술의 내일을 여는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5개 

2013년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사업> 지원 분야
음악, 미술, 전통예술, 연극·영화, 무용

21명 

2013년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술영재

45,000,000원 

2013년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금액



2013년 <예술영재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술영재

분야	성명	연령	지원내용	지원금액(원)
음악	한윤승	중2	악기구입비	2,000,000
음악	김정오	중1	개인레슨비	1,500,000
미술	정지혜	중3	레슨비	1,500,000
음악	양화영	초2	교육비	2,000,000
전통예술	김현지	초5	개인레슨비	2,500,000
음악	조서정	초5	악기구입비	2,000,000
음악	박정현	중1	개인레슨비	3,000,000
음악	김재영	고3	개인레슨비	2,500,000
음악	김예지	중3	악기구입비	2,000,000
음악	김윤서	중1	개인레슨비	2,000,000
음악	이금빈	중3	개인레슨비	2,000,000
전통예술	여정록	초4	개인레슨비	2,000,000
음악	정재현	18세	개인레슨비	2,000,000
음악	김채린	초6	악기구입비	2,000,000
음악	고류원	초4	개인레슨비	2,000,000
연극·영화	신채환	고2	공연제작비	3,500,000
무용	백소희	고3	개인레슨비	3,000,000
음악	박상현	중2	개인레슨비	2,000,000
음악	송하영	중1	개인레슨비	2,000,000
미술	장승원	중1	개인레슨비	2,000,000
음악	도유화	중1	개인레슨비	1,500,000
합계				45,000,000

16 컨테이너아트터미널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 인디문화의 새로운 메카가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아래 자리 잡은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수시로 펼쳐지는 부산의 인디밴드와 힙합크루의 공연, 청년작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전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 모두가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개관 이후 12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



사상인디스테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된 컨테이너



2013년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개최된 '불금파티'



2013년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에 오른 인디밴드와 공연팀



2013년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관람객



사상인디스테이션은?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83
- 시설 : 지상 3층, 소란동(다목적홀, 전시공간, 야외무대) 및 도란동(다문화카페 무지개, 레지던스, 스튜디오, 사무실) 2개 등
- 운영 : 10:00~18:00(월요일 휴관)
- 홈페이지 www.catssasang.com

사상인디스테이션 보유 장비

- 음향장비
 - Main Speaker ADP-15(4EA), Sub Speaker ADP-18S(2EA), Monitor Speaker F1220A(4EA), Monitor Speaker FLEX SYS F12(6EA)
 - Mixing Console MG32/14FX(1EA)
 - Wireless Microphone ULXP4(4EA), Wireless Microphone ULX2/SM58(4EA), Microphone SM58K-LC(10EA), Microphone SM87A(4EA), Microphone DMK57-52(1EA)
- 조명설비
 - ELLIPSOID LIGHT (10EA), LED MOVING LIGHT(6EA), PAR LIGHT(36EA), STROBE(4EA), FOG MACHINE(1EA), CONSOLE(1EA)

부산의 인디공연팀과 청년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획공연과 기획행사 개최

7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 주 금요일에 총 9회의 '불금파티'를 개최하여 부산의 인디밴드·힙합·비보이·재즈 뮤지션을 소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시민의 여가문화를 주제로 11월 개최된 <싱니로 장비다툼>과 청년예술가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청년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와 연계하여 인디공연팀과 공간 운영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년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포럼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술·사진·음악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장소를 대관을 지원하였다.

대관프로그램 운영

주말을 활용하여 사상인디스테이션의 운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간 대관을 지원하였다.



17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부산 인디문화 네트워크의 거점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부산 도시철도 민락역에 자리 잡은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는 부산 지역 인디 아티스트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인디문화 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인디문화 콘텐츠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개



2013년 7월 개관 이후 12월까지 진행된 자체기획 프로그램

3건



2013년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에서 지원한 부산 지역 인디·힙합 공연 및 콘서트

5개



2013년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에서 지원한 입주단체·협력단체 공연 및 활동

27개



2013년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입주단체

공간 운영

입주단체, 협력단체, 문화예술단체,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연습실과 회의실 등의 공간을 지원하고, 인디밴드·힙합 상설 사진전과 부산인디정기포럼,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노라보자> 등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개최

거리공연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거리로 나온>, 다원문화예술공연 프로젝트 <Mix&Match>, 부산인디문화제 <민Rock 페스타>, 신인 인디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New Breeze Indie>,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노라보자> 등 인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산 지역 인디·힙합 공연 및 콘서트 지원

다 같이 혼자 클럽한바퀴 <동백락원>, <부산클럽투어>, 부산지역인디축제 <부산선셋라이브>, <메탈파이어리츠>, 힙합 DJ·MC 공연 <비트매칭>, <게토쇼> 개최를 지원하였다.

입주단체·협력단체 공연 및 활동 지원

부산 어쿠스틱 거리공연단체 '사운드팔레트' 단독공연, 창작극 단체 '물음피' 창작연극 <방과후>, 부산청년기획단 '부산청년예술단' 정기공연 <8월 새벽> 등을 지원하고, 예술 나눔 단체 '이음'의 <나눔콘서트>와 기부활동, 인디밴드 '스톤드' 앨범 발매를 지원하였다.

2013년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입주단체

공간	단체	분야	비고
다목적연습실	코델리아	라틴댄스와 운동을 결합한 퍼포먼스 활동	1기 입주단체
	음악극단 콩나물	기존 음악극과 밴드가 참여한 창작음악극 활동	
	부산청년 예술단	뮤지컬 b-boy 한국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공연 기획	
	물음피	스터디형식의 연극모임 후 연극작품 공연	
	하람단미	비보이	
밴드연습실	에이스팀		2기 입주단체
	Sound Palette	보컬 퍼코먼스, 아카펠라, 어쿠스틱 유닛	1기 입주단체
	YUMI	싱어송라이터, 밴드 스키모토 레이디랜드 활동	
	카우칩스	블루스, 컨트리기반 Rock밴드	
	차수정	싱어송라이터	
	조연희		
	STONED	Punk Rock Band	
	SIGNAL	Alternative Rock Band	
	MANIXIVE	Metal Core Band	
	RockVan	한국적인 그루브한 Rock을 연주하는 밴드	
	ScotchCore	Alternative Rock Band	
	프로메나드	Modern Rock Band	
	B1	직장인 밴드 동호회	
	CoCoCrue		
	데릭		
마라			
과메기			
올아이해브	밴드	2기 입주단체	
배드트리거			
콜라밴드			
바나			
트레이터			

18 — 젊은예술가 문화예술 지원

부산문화재단 비전의 핵심가치인 '해양, 미래, 순환'의 의미를 담아 부산 지역 젊은 예술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013년 1월 공연예술 분야의 작가 15명이 영국의 런던, 뉴캐슬, 에든버러 등을 탐방한 것에 이어 11월 25일부터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젊은 작가 8명이 독일의 베를린, 라이프치히, 함부르크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의 예술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인적·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5개 공연단체와 함께 '2013 서울아트마켓'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국제교류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명



2013년 <젊은예술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2013 서울아트마켓'에 참가한 문화예술인

8명



2013년 <젊은예술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독일을 탐방한 시각예술 작가

5명



2013년 <젊은예술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외 연계 프로그램에 참가한 문화예술인

Connection Box in Europe

35세 이하의 시각예술 작가 8명이 독일의 베를린, 라이프치히, 함부르크 지역을 14박 15일의 일정으로 탐방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첫 방문 도시인 베를린에서는 독일 문화예술의 중심인 '신미술협회(NBK)'와 '신사회미술협회(NGBK)'의 관장과의 미팅을 통해 독일 역사, 문화, 정치의 개연성 및 유기적인 흐름을 학습하고, 주요 레지던시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작가들의 작업 여건 등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지역의 대표 레지던시 공간인 '슈피너라이'를 비롯한 레지던시 공간을 방문하여 작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작가단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특히 슈피너라이의 'Halle 14'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부르크에서 유명작가의 작품을 관람하고, 갤러리 관계자, 기획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Artist Bridge 국내·외 연계 프로그램

2012 Connection Box in Europe 참가자 중 영상분야 작가의 <부산-글라스고 영상 교류전> 참가를 지원하고, 프랑스의 <아비뇽 OFF 페스티벌>에 연극분야 예술가 4명의 참가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제 공연 네트워크를 위해 개최되는 <2013 서울아트마켓>에 6명의 개인 참가자와 5개 공연단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였다.



“14박 15일 동안 베를린, 라이프치히, 함부르크를 여행하며 직접 돌아본 독일의 미술계는 그야말로 다이내믹 했다.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며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하면서 독일을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선진 예술문화강국으로 성장시켜 왔다. 이것은 어느 날 똑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완전히 정착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예술가의 천국처럼 보이던 베를린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떠난 현지 작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독일 미술계가 앞으로 어떻게 흐르고 변화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모든 중심에는 고민하고 행동하는 예술가와 그들과 함께하는 미술계 종사자들의 협력,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지지, 이렇게 3박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도 예술계의 발전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예술계가 앞장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Connection Box in Europe 2013>에 참가한 시각예술가 임현정 '공감 그리고' 2014년 봄호 'Connection Box in Europe 2013' 독일 참가기 중 발췌



19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출판사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출판사의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직접 구매한 도서를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출판사와 작은도서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부산 지역 출판사에서 초판 발행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총 5권의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72개 지역도서관에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출판문화 활성화와 지역출판사의 우수한 기획 제작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작은도서관의 기부 희망처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기업 '청년팀 MAJI'에서 우수도서 마크를 재능 기부로 제작하여 지역출판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기부 희망 작은도서관의 증가율



2013년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선정 도서



2013년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선정 도서가 배포된 지역의 작은도서관



2013년 구입하여 배포한 우수도서

2013년 선정된 우수도서

도서명	출판사
내안의 깊은 울림	도서출판 인사이트영
망각과 소외의 연극사	도서출판 해성
문학을 탐하다	산지니
물금나루	도서출판 전망
시가 있는 등대이야기	호밀밭



내안의 깊은 울림 도서출판 인사이트영 / 이동근 저

일제강점기 시절 군사적인 목적으로 매립하여 마구간으로 사용했던 매죽지 마을은 해방 이후 귀환동포들과 6·25를 거치며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주택으로 개조되어 지금까지 좁디좁은 그곳의 공간에 부산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함축되어있다. 부산 동구의 원도심 매죽지를 기점으로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안창마을과 수정산복도로, 초량산복도로로 이어지는 35km는 부산 근현대사의 소중한 문화적 공간과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작가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질지도, 소중한 역사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지도 모를 이 범일 5동 매죽지마을의 지역주민의 생활과 공간을 재조명하였다.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역사를 인터뷰해 사진과 함께 구성하였다.



망각과 소외의 연극사 도서출판 해성 / 김남석 저

연극 평론가인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남석 교수가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연극 칼럼과 각종 잡지에 기고했던 평론, 작품해설 등을 엮은 책이다.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연극사를 흥미로운 주제 선택과 흡입력 있는 입담으로 풀어 일반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저술되었다. 1부는 1920-1930년대 대중극단의 흥망성쇠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한국 연극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맹, 시나리오, 의상담당자, 분장사 등 무대 뒤의 사람들에 대한 미시사를 다채롭게 펼쳐낸다. 또한 식민지 최고의 화제작이나 국민연극경연대회 등의 사건을 통해 당대 연극의 사회적 파급력과 한국 연극의 뿌리를 추적한다. 2부와 4부는 부산연극의 지력과 한계를 점검하고 정체되어있는 지방연극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3부에서는 최근 발표된 연극 작품들에 대한 해설, 평가와 더불어 현실과 과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사유가 이어진다. 제목 중 '망각'은 잊혀진 옛 대중연극을 의미하고 '소외'는 중앙으로부터 소외된 부산연극을 의미한다. '지난 세계에서 흘러나온 빛이 지금 여기의 우리 삶을 비추어야한다'는 저자 김남석의 말처럼, 『망각과 소외의 연극사』는 옛것과 지방을 복원하고 싶은 열원의 발로이자 과거와 현재, 지역과 중심을 아울러 연극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문학을 탐하다 : 문학기자 최학림이 만난 작가들 산지니 / 최학림 저

평론가도 독자도 아닌 기자의 눈에 문학과 작가는 어떻게 보일까. 부산 경남의 작가 18명(소설가 7명, 시인 11명)을 소개한 산문집 『문학을 탐하다』는 문학기자 최학림이 기자 생활 20년 동안 묵묵히 써내려간 이 질문의 답이자, 애정 가득한 지역문화 기록이다. 최학림은 작가를 잘라내는가 하면 어느새 그려낸다. 작품을 한 문장, 한 단락씩 발라내 그 의미를 풀어내다가 어느새 '실없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그의 글은 저자가 소개하는 작가며 작품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궁금하게 한다.



물금나루 도서출판 전망 / 강영환 저

1992년 『쓸쓸한 책상』 이후 20년 만에 내는 산문시집이다. 상상력에 여유를 주고 선명한 구체성을 확보해 보려 노력했지만 그 쉽다는 점 때문에 산문시에 대한 당착에 빠져 그동안 선불리 쓰지 못했다고 시인은 말한다. 이번 작품집에서는 편안하게 읽히는 산문시를 쓰고 싶었다는 시인은 그동안의 고풍을 떨쳐버리듯 감정 덩어리들을 토해내었다.



시가 있는 등대이야기 호밀밭 / 동길산 저

부산과 고성 산골을 오가며 글쓰기에 전념하는, 등단 20년을 넘긴 부산 지역의 중견 시인 동길산이 부산경남 일대의 등대들을 찾아 바라보고, 묻고, 느끼며 새롭게 쓴 시편들과 함께 등대이야기들을 엮었다. 각 등대에 얽힌 기본적인 소개나 정보도 알차지만 무엇보다 '힐링'이란 말이 유행할 만큼 모두가 삶의 위기를 외치는 이 시대에 등대라는 소재를 통해 외롭고도 난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속도와 인연 등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의 울림이 크다. 등대를 중심으로 풍경과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들이 있고 지내온 삶의 진술하면서도 생생한 단면들을 시인 특유의 서정성으로 포착해낸다. 동길산 시인의 아내이자 사진작가인 박정화가 찍은 사진들이 함께 해 더욱 공감의 힘을 높인다.

20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원

부산과 아시아의 인문학적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
부산 지역 인문학계, 민간 인문학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를 인문학적 특성에 기반 두어,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 아시아-2013 부산 인문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성에 대한 대담, 전문가 찬반 토론, 민간 인문학 단체의 사례발표를 통해 부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지역의 민간 인문학 단체 활성화를 위한 <부산 인문학과 함께하다>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 5개 인문학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여 명

<2013 부산 인문학 포럼>에 참가한 시민

5개

<부산 인문학과 함께하다>를 통해 선정된 부산 지역 인문학 단체

500여 명

<부산 인문학과 함께하다> 지원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



부산이 아시아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는 <부산, 아시아-2013 부산 인문학 포럼> 개최

구분	내용	대담 및 토론	진행	일정	
프로그램 I	대담	부산, 정신을 듣는다	강남주(전 부경대 총장), 심봉근(전 동아대 총장) 오거돈(전 해양대 총장), 장혁표(전 부산대 총장)	김동철 (부산대 교수)	11/29(금)
	Session 1	아시아 살릴 것, 버릴 것	김봉건(동의대 교수) vs 김태만(해양대 교수)	강동수 (국제신문 논설위원)	11/29(금)
프로그램 II	Session 2	부산 살릴 것, 버릴 것	양맹준(전 부산시립박물관장) vs 김용규(부산대 교수)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11/30(토)
	Session 3	아시아 살릴 것, 버릴 것	정천구(백년어서원) vs 신홍철(동아대 교수)	정출현 (부산대 교수)	11/30(토)
프로그램 III	사례발표	민간 인문학 단체 '생활기획공간 통', '인문학교 섬'	김동규 (공간 초록)	11/29(금)	
프로그램 IV	공감·조화·상생의 아시아 가치 회복	청소년 인문학 단체 '인디고 서원'	박용준 (인디고서원)	11/30(토)	

민간 인문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부산 인문학과 함께하다>

단체명	행사명	행사장소
생활기획공간 통	부산 문화적 변화의 일상의 재발견	생활기획공간 통
인문학교 섬(閃)	인문학교 섬(閃) 세대 간 인문학 캠프	인문학교 섬 교육장 및 공간초록
오늘의 문예비평	부산의 박물관 탐방과 장소성 찾기	요산박물관, 밀양 일대
청소년 코칭협회	인문학, 세상과 나의 삶을 만나게 하다	청소년코칭협회 평생교육원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아줌마 영화 인문학 교실 zoom in cinema	책나무 그늘 작은도서관 외 2곳



03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토요일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우리가락 우리마당
 달리는 부산문화
 문화이용권 사업
 부산사랑티켓 운영 지원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문화예술비평지 『공감 그리고』

21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실천합니다.

문화 소외지역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에서 우수한 문화예술행사가 무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이 행사희망시설과 사업희망단체의 매개자가 되어 부산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시설에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선정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예산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5 곳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지원받은 문화 소외지역 및 문화 취약시설

43 개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 문화예술단체

146,800,000 원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

169 회 

2013년 43개 단체가 펼친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선정 시설(45곳)

- 노인 및 종합 복지 시설 :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등 15개 시설
- 장애인 복지 시설 : 남구장애인복지관, 사직클럽하우스, 부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9개 시설
- 아동 복지 시설 : 금샘지역아동센터 등 7개 시설
- 요양원 및 의료 시설 : 그리스도요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6개 시설
- 도서관 및 문화 관련 시설 : 구포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등 4개 시설
- 다문화 관련 시설 : 아시아공동체학교 등 2개 시설
- 민간 구호 단체 및 기타 : 그린닥터스 등 2개 시설

201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선정 단체(43개)

- 국악 및 전통 분야 : 예오르예술단 등 13개 단체
- 연극 분야 : 아트레볼루션 등 9개 단체
- 음악 분야 : (사)국제로타리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12개 단체
- 무용 분야 : 부산새암춤회 등 4개 단체
- 미술 분야 : (사)미협 부산지회 1개 단체
- 다원 · 매개 분야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



22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용두산공원에서는 2009년부터 130회의 전통민속놀이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용두산공원에서는 어르신들의 문화적 향수를 자아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부산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마당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지역 무형문화재 중심의 전통민속놀이를 소개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속적인 상설공연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0 회 

2009년~2013년 운영된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134,390 명 

2009년~2013년 관람객 수(유동 관객 포함)

4 개 

토요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 안내 서비스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 공연내용

- 기간 : 2013년 4월~10월(7, 8월 제외) 매주 토요일 14:00
- 장소 : 용두산공원 야외광장 및 상설공연장
- 참가단체 및 내용

회차	공연일자	공연단체	공연내용
1	10.5 (우천순연)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농악
2	4.13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농청놀이
3			좌수영어방놀이
4			동래지신밧기
5	7.13 (우천순연)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학춤
6			동래고무
7	4.27	부산예술단	사물놀이 한마당
8	5.11	(사)동초제판소리보존회	창극 <사랑놀음극>
9	5.18	부산가야금연주단	가야금연주
10	5.25	부산영산재보존회	영산재
11	6.1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용왕굿
12			세존굿
13	6.8	큰샘민속예술원	전통혼례식
14	6.15	낙동민속보존회	구포대리지신밧기
15			모듬북
16	6.22	(사)사하방아소리보존회	사하방아소리
17	6.29	(사)고성오광대보존회	고성오광대놀이
18	7.6	(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타악한마당
19			판소리
20			동래지신밧기
21	11.2 (우천순연)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한량춤
22			동래야류
23	9.14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강태홍류가야금산조
24	9.28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야류
25	8.31 (일정변경)	(사)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다대포후리소리
26	10.12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구덕망개놀이
27			고분도리걸림
28	10.19	남산놀이마당	러쉬앤캐쉬-모듬북
29			타악한마당
30	10.26	부산국악협회	창극 <놀부전>



2013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23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부산, 2009년부터 매주 일요일 흥겨운 전통문화 판을 열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예술단체에 창작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과 관람객과 함께하는 민요 배우기를 비롯하여 전통기·예능 이수자인 사회자의 입담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2013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관람객 수



2009년~2013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외국인 관람객 수



2013년 1회 공연 평균 관람객 수



2009년~2013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 횟수

공연 형식으로 재현이 가능한 부산시 보유 무형문화재

지정번호	등록명	소재지	전승·보존단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8호	동래야류	동래구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43호	수영야류	수영구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62호	좌수영어방놀이	수영구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2호	수영농청놀이	수영구 수영동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3호	동래학춤	동래구 온천동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4호	동래지신밧기	동래구 온천동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6호	부산농악	서구 서대신동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7호	다대포후리소리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
8호	가야금산조(강태홍류)	동래구 온천동	강태홍류가야금산조보존회
9호	부산영산재	사상구 모라동	부산영산재보존회
10호	동래고무	동래구 온천동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11호	구덕망깨터다지기	서구 서대신동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14호	동래한량춤	동래구 온천동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16호	아쟁산조	동래구 온천동	박대성류 아쟁산조(박대성)
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	서구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22호	수영지신밧기	수영구 수영동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3호	오구굿	기장	기장오구굿보존협회





■ 공연내용

- 기간 : 2013년 4월~11월(7, 8월 제외) 매주 일요일 14:00
- 장소 : 용두산공원 야외무대
- 참가단체 및 내용 : 기악, 성악, 무용, 퓨전국악 등 전통예술 중심

회차(날짜)	단체
1회(4.14)	사물놀이 청, 마당굿패 파루, 시민취타대, 낙동민속보존회, 도시락
2회(4.21)	세비가무용단, 매구놀이마당
3회(4.28)	버슴새, 일파가야금연주단
4회(5.12)	김정원춤소리예술단, 젊은소리 쟁이
5회(5.19)	김선희무용단, 국악퓨전그룹 노리
6회(5.26)	추임새, 황지인무용단
7회(6.2)	해오름 무용단, 부산가야금연주단
8회(6.9)	권원태 줄타기, 박순희무용단
9회(6.16)	부산무용협회, 우리소리 우리가락 청
10회(6.23)	부산국악협회, 이정화와 춤꾼들
11회(6.30)	춤패 배김새, 동백국악단
12회(8.25)	조현영무용단, 영산마루
13회(9.1)	해오름전통예술단, 정미숙무용단
14회(9.8)	미토리, 부산예술단
15회(9.15)	마당굿패 파루, 한국무용단 비선
16회(11.3)	태화루, 한퍼포먼스컴퍼니
17회(10.6)	윤정미무용단, 풍류
18회(10.13)	두레예술단(초청)
19회(10.20)	하정화무용단, 해미르예술단
20회(10.27)	예술창고, 하연화무용단

24 달리는 부산문화

부산형 트랜스포머 무대차량 ‘달리는 부산문화’가 2010년부터 12,000km를 달려 부산 지역 곳곳에서 61회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동형 무대차량이 가지는 가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 생활문화 커뮤니티와 지역 예술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년 '달리는 부산문화'가 달려간 곳

회차	날짜	운영형태	장소	내용	관람객 수
-	5.12(일)	차량지원	광안대교	2013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차량 지원	-
1회	6.18(화)	장소선정	창진초등학교	이주민 노동자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우천취소
2회	6.28(금)	사연공모	동원택시주차장	주거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700명
3회	7.9(화)	장소선정	서구청녹원광장	여성주간 맞이 여성단체를 위한 문화공연	400명
4회	7.17(수)	사연공모	동래구한신APT	지역민들의 봉사활동과 함께 한 문화공연	650명
5회	8.29(목)	장소선정	영도남향대교밑	영유아 대상의 문화공연 프로그램	500명
6회	9.12(목)	장소선정	뇌병변복지관	뇌병변장애우와 인근 시민들의 문화화합의 장 마련	750명
7회	10.6(일)	사연공모	스포원체육공원	가족 단위 관광객 대상 문화공연	600명
8회	10.9(수)	토크콘서트	기장중학교앞	부산국제영화제 맞이 부산 출신 영화인들의 토크콘서트	150명
9회	10.16(수)	장소선정	덕천주공아파트	지역민 대상의 클래식 & 재즈 공연	750명
10회	10.18(금)	토크콘서트	수성초등학교	한정기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350명
11회	10.23(수)	토크콘서트	금사초등학교	배유안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550명
12회	10.26(토)	장소선정	사상인디스테이션	젊음과 열정의 합침이야기	650명
13회	10.30(수)	장소선정	홍티아트센터	공장 밀집지역에 개관하는 홍티아트센터 개관식에서 인근 노동자들에게 문화향유기회 제공	200명
합계					6,250명

'달리는 부산문화' 차량은



무대

무대명 달리는아트센터(4.5톤 초장축개조)
무대크기 7m X 6m
무대제작 2010년(부산은행기증)
차량검사 2013년 12월 차량검사 합격(2014년 12월 검사 예정)
차량크기 2.5m X 9.5m X 3.8m

조명

LED PAR 16구(무대뒤쪽 8구, 무대앞쪽 8구)
 LED Jupiter 2구(출연진용, 무대앞쪽 설치)
 LED Moving 4구(무대뒤쪽2구, 무대앞쪽 2구)
 DMX Controller 1대(조명콘솔)
 관객용, 대기실용 LED조명운영

발전기

조명용 발전기 5kw
 음향용 발전기 5kw

기타

음향 대여운영
의자 플라스틱 관객용 의자 200개 운영
 행사에 필요한 기타 장비 대여 운영(텐트, 추가의자 등)

25
문화이용권

문화복지도시의 꿈, 부산 문화이용권 사업이 일어납니다.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람료와 음반·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화된 기획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238,200,000 원

2013년 문화카드 예산

64,764 매 100%

2013년 발급된 문화카드

2013년 문화카드 발급률

33,609 명

2013년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관람인원



2,046 건

2013년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진행 프로그램

문화카드 사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5만 원의 카드(청소년 개인카드 최대 6매)를 발급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과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이다. 2013년에는 총 64,764매를 발급하여 예산대비 100%의 발급률과 89.8%의 발급카드 대비 이용률을 보였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 모셔오는 서비스 <착한티켓>

카드 발급 방식을 통한 지원에서 소외된 대상자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연극, 뮤지컬, 대중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 및 이동 차량을 지원한다. 2013년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 '사라브라이트만 콘서트', '남진 콘서트' 등 총 129개 프로그램에 대해 14,133명이 관람의 기회를 가졌으며,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내가 문화적 기회를 누렸다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갔다', '평상시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답하는 등 소외 대상자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기여하였다.

• 재가방문 서비스 <착한그물>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세대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가방문 예술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한지공예·미술·도자기공예·문학·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39명이 1,700세대를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햅쌀 10kg을 지원하였으며, 신청세대가 전년도 978세대 대비 73.8% 증가하여 참가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

<집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인 노숙인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업 공동체로의 회귀와 재활 기회를 자극하고, 상호 긍정적인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사)밥퍼 나눔공동체, 동구쪽방상담소, 금정 희망의 집,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약 2,000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노숙인 잡지 『낮선아침』 발간', '노숙인 영상제작단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예술여행>

거주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의 유·무형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회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는 총 343명이 광주, 전주, 경남 고성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문화정거장>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가 문화예술 분야의 저명인사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2회에 걸친 문화일반·연극·음악·전통·대중공연으로 총 10,065명이 쌍방향적 콘텐츠를 즐기는 기회를 가졌다.

<문화공작소>

문화이용권 대상자의 문화 창작능력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반영하여 문화복지사들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수혜자들은 문화나눔으로 결과물을 공유했다. 아동·청소년과 음악·도예·무용 분야의 지역 예술인을 매칭하여 다양한 발표회를 선보이는 '꿈지락 꿈지락', 지역주민들이 미술·문화해설·스토리텔링·음악 분야의 지역 예술인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를 탐방하는 '방방곡곡 우리 동네',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진·국악·시 분야의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인 '할머니 꽃이 피었습니다', 장애인과 음악·춤·그림 분야의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프로젝트인 '예술 에세이' 등의 프로그램이 15개 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2,372명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욕구를 키워나갈 수 있었다.

• <플러스 서비스>

문화카드 소지자들이 효율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다과·수화 등의 제반요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이동서점', '단체공연관람 지원', '영화관람권 구매 대행', '티켓나눔' 등 세분화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영광도서와 협력하여 부산진구 등 총 6차례 진행된 '찾아가는 이동서점'에서는 10~20%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를 판매하고, 단체공연관람 신청자 77명을 대상으로 2차례 차량과 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카드 이용을 지원했으며, 메가박스 서면점과 협력하여 6,575장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할인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티켓나눔'을 통해 1,848명을 대상으로 106개 프로그램의 무료 관람을 지원함으로써 총 104,273,000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웅장한 공연이 끝나고 앞에서부터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한다. 나도 용기를 내어 일어서 보았다. 아..... 기립박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감동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뛰었다.

기획사업 <착한티켓>으로 뮤지컬 <엘리자벳> 관람(전혜원)
우수 수기 중 발췌





부산 동구의 쪽방에서 주선하고 준비한 영상미디어 교육을 받았다. 6주에 걸친 영상미디어 제작과 메시지 정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 본다. 부산의 관련 인프라와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자영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장르일 수 있겠다 싶었다. 두 분의 강사와 한 분의 스탭이 준비한 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은 참으로 성실한 것들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했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및 완성작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인의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제작한 영상과 관련 기기를 신기해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은 교육과정의 단락마다 희망과 자존감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품 주제와 촬영 결과물의 간극마저 희망과 긍정의 발로였던 것은, 잊고 살았던 푸른 희망에 더해지는 끝없는 노력의 각오를 의미했으리라. 삶에 대한 잡초의 근성을 지켜보며 문득 잡초인 자신을 새삼 또 자각한다.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의 차이를 넘어서고, 연출과 느낌의 일체화를 끝없이 도모할 때, 아름답고 정확한 영상미디어를 소유하고 나눌 수 있으리니 이념까지 무시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막강한 수단을 잘 활용하지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역설적으로, 얼룩지고 어두운 어떤 모습과 현상을 긍정과 낙관을 재생산해내는 세태의 한켠에서 건강한 인생이 건강한 영상을 만들어내더라는 말씀을 전하며 영상미디어학과 관련된 내용을 두서없이 살펴보았다. 두 분의 강사와 동구 쪽방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영상 미디어 교육 후기의 종장을 접는다.

영상 미디어 교육을 받은 후에(故 김성태)
 <집으로> 노숙인 영상 제작단 체험 후기 중 발췌

굽어진 마디마디 거친 손마디로 고맙다고 마주 잡아주시고, 또 눌러 오라는 인사를 어김없이 받으며 문을 나설 때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 그저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도 미안하고, 한 번 더 오기가 쉽지 않음이 미안하고, 그네들의 거친 삶을 들여다보고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선이라 미안하다. 착한그물 문학 강사 3년 차! 그간 많은 세대를 방문하진 않았지만 방문했던 한 세대, 한 세대가 다 잊히지 않는다. 문학소녀의 꿈을 잃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니부터 몸이 아파서 혼자 병원 가기가 힘들니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 어머니, 소녀 시절 손가락을 사고로 절단당하고 그것으로부터 열등감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 학교 방과 후에 늘 혼자 있어 심심하다는 친구, 뇌병변 장애로 몸을 못 움직여도 시를 쓰고 있는 친구 등등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사연과 이야기들은 다 다양하다.

기획사업 <착한그물> 문학 강사 옥순주
 활동 후기 중 발췌



26 부산사랑티켓 운영

문화로 여는 미래, 예술로 나누는 행복을
 19,427명의 부산 시민과 함께 나눴습니다.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하게 하고, 잠재 관객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문화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427명

2013년 사랑티켓으로 공연·전시 관람료를 지원받은 부산 지역 아동·청소년 및 노인

202건

2013년 사랑티켓으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한 공연·전시

지원내용

관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람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1건당 7,000원, 전시 1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개인은 연 10회, 10인 이상의 단체는 연 1회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사랑티켓 이용자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부산시 소재 소극장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27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문화가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 도시철도 북 하우스

도시철도 북 하우스는 부산 도시철도 연산역·덕천역·중앙역·수정역·온천장역 내 5곳에서 운영 중인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 인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 생활 속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05 권 

북 하우스 5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

53,670 명 

2013년 북 하우스를 이용한 방문객

북 하우스 운영

- 이용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00(연산·온천장역은 16:00까지)
- 프로그램 : '시인과 함께하는 시낭송콘서트(8회)',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1회)', '시화나눔행사(3회)'



28 문화예술비평지 『공감 그리고』 발간

부산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비평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2011년 6월부터 부산의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비평을 담은 문화예술비평지 『공감 그리고』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부산문화재단의 비전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 '미래', '순환'의 가치와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만들어갔습니다.

12,000 부 

연간 발행된 『공감 그리고』

89 권 

2013년 『공감 그리고』에 실린 기사

10 명 

2013년 편집위원

2013년 편집위원회

- 편집주간 : 김원명(경성대 음악학부 교수)
- 편집위원 : 권유리아(문화평론가), 김용규(부산대 영문과 교수), 김은영(부산일보 편집국 선임기자), 김이석(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김형찬(대중음악평론가), 류성호(문화기획자), 송필석(울속도문화회관 공연기획팀장), 오재현(부산발전연구원 지역재창조연구실장), 조은정(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주요 내용

- 봄호(vol. 08) 부산 문화의 비전과 가치 '해양'
- 여름호(vol. 09) 부산 문화의 비전과 가치 '미래'
- 가을호(vol. 10) 부산 문화의 비전과 가치 '순환'
- 겨울호(vol. 11)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





04 문화예술 창작기반 구축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홍티아트센터 운영지원>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

감만창의문화촌 관리·운영

전자 아카이브 구축

부산문화포럼 운영

공간기부뱅크

29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이인삼각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부산에 공연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역의 공공 공연장이 상주단체를 통해 수준 높은 공연과 퍼블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는 공공 공연장이 제공하는 안정된 여건 속에서 창작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개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부산 지역 공연장

8개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부산 지역 상주단체
연극 2, 무용 3, 음악 2, 전통 1

630,000,000 원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내용

2013년에는 총 7개의 부산 지역 공연장과 8개의 공연단체를 매칭하여 5천8백만 원을 지원하고, 융복합프로그램 기획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김옥련 발레단의 <해운대연가>에 5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였다. 공연장과 단체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국영문 통합 리플렛, 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8월에는 상주단체들이 함께하는 <2013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11월에는 <영남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포럼>을 개최하여 공연장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연장	상주단체	분야	지원금(천원)	지원기간
동래문화회관	극단 맥	연극	85,000	
	뉴프라이م 오케스트라	음악	100,000	
해운대문화회관	김옥련 발레단	무용	85,000	
			※융복합프로그램 기획지원 50,000 별도	
을숙도문화회관	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	음악	90,000	2년
민주항쟁기념관	무용단 redstep	무용	60,000	
북구문화빙상센터	부산가야금연주단	국악	60,000	
영도문화예술회관	극단 에저도	연극	50,000	
춤공간 'shin'	신은주무용단	무용	50,000	

30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

2013년, 국내외 95명의 작가들이 부산을 무대로 창의적인 실험과 교류를 펼쳤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국내외 우수한 예술작가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거주하면서 다양한 작품활동과 지역주민 연계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에는 재공모를 진행해야 할 만큼 적합한 사업과 단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는 단체와 사업들이 기반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해 4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1개 단체는 신생단체로 구성하여 지원의 불균형을 좁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000명



2013년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

95명



2013년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

168건



2013년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작품

434일



2013년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공연·전시·행사 일수

143회



2013년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공연·전시·행사 횟수

지원내용

• 4개 단체 4개 사업 180,000,000원 지원

사업명	단체명	지원금액(천원)
2013 AGIT 레지던스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대표 김건우)	50,000
복병산 창작여관	문화소통단체숨(대표 차재근)	30,000
꽃마을국제퍼포먼스 레지던스	부산자연예술인협회(대표 조성백)	50,000
2013 Open to You -international artist in residence	오픈스페이스배(대표 서상호)	50,000
합계		180,000

단체 및 프로그램 내용

•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재미난 복수’는 서브컬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문화운동단체로 반전·환경·빈곤·여성·장애인 등 문화의 사회적 발언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기획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문화적 실험을 존중하며, 기획행사를 통해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문화단체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컨설팅·지원·연대를 통해 상생을 모색한다.

‘독립문화공간 아지트’는 서브컬처와 관련한 세미나·워크숍·강좌를 기획하여 중요사안의 담론을 유도한다. 갤러리·작업실·합주실·녹음실·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고 서브컬처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공간과 독립문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산 지역 독립문화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간은 지하(합주실), 1층(사무실, 아티스트 게스트 하우스, 휴게실, 녹음실), 2층(갤러리, 시각예술 스튜디오) 옥상(휴게실), 마당(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소통단체 숨

기존의 비보이 공연(스트릿댄서) 및 공연 제작, 축제 기획 지원을 통한 독립문화 예술가 지원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부산의 대안문화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내 독립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공연 제작 및 축제 기획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 실현과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유출 방지와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북구 창조문화활력센터 위탁운영, 년번벌 퍼포먼스 및 비보이 공연,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레지던스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부산자연예술인협회

2005년 가을, 현대미술의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단체이다. 꽃마을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1회 꽃마을 자연예술제’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본·중국·미국·대만·에스토니아·프랑스·콜롬비아 등의 문화 단체, 작가들과 문화적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시각예술을 다루는 기획전 개최, 공공미술 설치, 해외 대안공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탈 장르적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의 외곽인 일광산 중턱에 위치한 ‘오픈스페이스 배’는 자연 속 예술공간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뜻있는 지역 작가와 활동가의 손으로 2006년 만들어진 비영리 예술단체이다. 국내외 작가 교류 프로그램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오픈 투 유>를 비롯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미술아 놀자>, 대학을 갓 졸업한 신진작가의 현실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공미술 프로그램인 <안창고 프로젝트>, <산복도로 1번지 도시에는 골목길이 있다>,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와 재조명할 가치가 있는 작가를 지원하는 전시프로그램 <Are you ready?>, 지역과 지역·지역과 세계를 엮는 <로컬 투 로컬 프로그램>, 외국의 예술공간과 교류를 위한 작가 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을 기점으로 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형성하고 있다.

31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홍티아트센터>

홍티아트센터가 옛 홍티포구에 문화예술 무지개를 띄웁니다.

홍티아트센터는 사하구 대대포 무지개공단 내에 있는 옛 홍티포구에 조성된 설치미술 전문 창작공간입니다.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다대포에 이르는 뛰어난 생태환경, 아미산 전망대와 마추픽추 감천을 있는 거점으로서 작가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창작 스튜디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연구·전시·교육·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에게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작가와 레지던시 창작공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711



2013년 홍티아트센터 방문객 10월~12월

281



2013년 개관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람객

130



2013 홍티예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7



홍티아트센터 1기 입주작가

홍티아트센터 1기 입주작가

작가	스튜디오	작가연구실	입주기간
유혜수(한국, 천안)	1	1	
손몽주(한국, 부산)	2		
윤영화(한국, 부산)	3		2013.10.7(2년)
변대용(한국, 부산)	4		
정민희(한국, 서울)		2	
라우라 메르코니(이탈리아)	5	5	2013.10.25~2014.1.17
나탈리아 페트로바(러시아)		4	2013.10.7~2013.12.29



홍티아트센터 주요 프로그램

2013년 8월 홍티아트센터는 정식 개관에 앞서 <2013 바다미술제>에 참여하는 왕이(중국), 후미히코 사노(일본), 김재영, 이일 작가가 입주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10월에 진행된 개관식에는 많은 시민과 관련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주작가 개관전시 <세상의 모든 사과>, 축하공연 <달리는 부산문화>, 작가와의 만남 <오픈 스튜디오>가 진행되었으며, 공단 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홍티예품>을 통해 '나만의 나무 상자', '영화랑 그림이랑', '내얼굴 망디앙 초콜릿', '나무로 만드는 쟁반', '비밀의 상자, 힐리의 상자', '무지개 젤리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함께 나눴다. 연말에는 홍티아트센터의 발전방향과 미래를 살펴보는 세미나 <지역 레지던시와 국제 미술 경향>과 1기 입주작가 성과발표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홍티아트센터는?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0번길 6
- 규모 : 대지면적 6,787.1㎡ 건축면적 745.84㎡ 총면적 1,224.81㎡
- 시설 : 지상 1층(스튜디오 1~5, 전시실, 공동작업장, 그늘정원, 옥외정원), 지상 2층(작가연구실 1~6, 커뮤니티홀, 세미나실, 휴게정원), 지상 3층(하늘정원)
- 관람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8:00
- 홈페이지 : busanartspace.or.kr/home/hongti



32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
〈원도심 또따또가〉

또따또가가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문화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부산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의 문화와 지역 간 네트워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0,007명 

2013년 또따또가에서 진행된 각종 축제, 교육, 전시 등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

311명  27개 

2013년 또따또가에서 활동한 예술가 또따또가의 다양한 시설이 자리 잡은 건물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간	내용
시민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비타민C	3.25~6.28	입주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2개 강좌 (48회, 240명)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가 2차사업 개소식	4.4	개소식 축하공연 및 이정표, 제막식(400명)
휴메트로와 함께하는 시민문화예술강좌	4.1~5.26	5개 강좌(40회 수업, 100명)
부산 아트투어	4.12~4.14	부산 및 일본 문화관계자 참여-부산아트투어(부산문화공간 탐방, 60명)
학술행사	4.12~4.13	Asia Art Producer Network Forum Vol. 1(2회, 150명)
또따또가 예술문화축전 '얏으나 서나 당신생각'	4.27~7.7	지구인시장in 중앙동(3회, 450명), 거리콘서트(7회, 1,050명), 전시(5회, 1,850명) 예술프리마켓 모다난展(3회, 500명) 공연 시네틱드라마 증인들(26회, 1,560명) 공연 살롱극 키스(1회, 80명) 공연 여관집 여주인(21회, 1,680명) 공연 40계단 우당탕탕(1회, 200명) 공연 이런저런 콘서트(7회, 350명) 강좌 및 오픈스튜디오(100여회, 1,000명)
후쿠오카 아트투어	6.21~6.23	또따또가 입주작가 및 문화관계자 참여(22명) 후쿠오카 문화공간 탐방 교류회 및 자유토론회(2회, 200명)
또따또가 탐방	1.2~12.31	41개 관공서 및 문화단체 탐방(1,450명)
또따또가 갤러리 전시	3.25~12.31	입주단체 및 작가 전시(13회, 6,500명)
또따또가 아카이브센터 스페이스 닷 전시	4.4~12.31	입주단체 및 작가 전시(5회, 3,000명)
또따또가 갤러리 콘서트	7.17~11.27	2회, 150명
국제교류행사	8.9~8.11 9.7~9.14 10.4 8.15~8.21	한일합작공연 연극 아오이 노우에 제작지원(5회공연, 750명) 2013 기타큐슈 비엔날레 월드투어 인 부산 전시 및 행사(800명) 아시안 테이블(4개국, 1회, 200명) 전주동문예술촌-또따또가 교류전시-전주 부산 교류전 <우리 지금 만나> (1,400명) <서울문래창작촌>예술생태계 지역간 교류를 위한 탐사전 - 작가교류회(3회, 80명)
국내교류행사	8.25~8.29 11.9~11.10	- 또따또가 공간탐방 및 작가네트워크회의(3회, 40명) - 예술생태계 지역간 활동내용 소개 및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워크숍(1회, 60명) - 또따또가 문화투어 워크숍(1회, 20명) <서울문래창작촌>문래창작촌 철부지의 날 기념선포식 및 문래투어 참여 - 작가교류회(2회) - 문화투어 참여 및 워크숍(1회)
거리문화행사	9.4~10.30	거리콘서트(4회, 800명), 지구인시장in중앙동(4회, 700명)
골목프로젝트	9.10~12.24	인쇄골목 나눔잔치(2회, 200명), 또따또치(7회, 105명)
원도심 문화투어	9.24~12.31	원도심 문화투어 워크숍(2회), 회의(16회) 원도심 문화투어 <또따또가> 모니터링 투어(2회, 60명)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10.19~10.20	왔다갔다 아트 페스티벌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곤야 스테이 501, 레이센소 갤러리 등) - Public discussion(2회, 300명), 공연(2회, 500명), 아트마켓(2회, 1000명), 전시(2회, 2000명)
입주작가 창작발표	4.1~12.31	스토리텔링북<원도심에 빠지다> 500부 강좌 & 강습 210회, 전시 13회 창작활동(소설집, 시집, 잡지, 영화, 공연 등) 23회

33

감만창의문화촌
관리 · 운영

2013년 부산문화재단 이전과 감만창의문화촌 개관으로
감만동에 새로운 복합문화예술공간이 탄생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로부터 관리 및 운영권을 위탁받아 옛 동천초등학교(남구 감만동) 건물
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 '감만창의문화촌'으로 이전하여 창의적인 문화예
술로 도시재생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혁신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000여 명이 참석한 개관
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240명 

2013년 감만창의문화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14개  16개 

감만창의문화촌 1기 입주작가팀

감만창의문화촌 창작공간 스튜디오



감만창의문화촌 1기 입주작가

장르	대표작가	협력작가
시각	아코피안 띠그란	최혜정(서양화)
	박민경	배교덕(섬유미술)
	박재형	황성민(음악, 작곡)
	김보경	성봉선(영상, 서양화)
	윤도영	
	구기연	이가원(서양화)
	사호길	정민정(한국화)
	김화주	양현미(서양화)
연극	조용근	강중환(타이포그래피), 이상기(영상디자인)
	문화소통연대 이야기	허종오(인형극), 남혜진(예술교육사업단 통), 박현형(극단이야기)
문학	한정기	이상미(동화)
	이영수	강문숙(시, 수필), 정맹룡(도예), 김승일(영상, 사진)
영상	오민욱	최용석(영화연출), 손호목(영화연출)
음악	유경훈	홍노경(보컬, 작곡), 박환(드럼), 한순규(기타)

감만창의문화촌 주요 프로그램

2013년 11월 개관전시 <동천초등학교와 나> 어린이 판화전, DIY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 개관식은 부산 지역 주요 기관장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만창의문화촌
에 대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재단 직
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포럼 <문화예술, 지역과 공존하기>를 준비
하여 감만 지역의 인사와 함께하는 '감만동 들여다보기' 강연과 일본 '고토부키 대안 네트워
크'의 사례발표를 바탕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입
주작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2013년을 마무리하였다.

공간현황

- 면적 : 부지 8,420㎡, 총면적 6,257㎡(지상 5층)
- 주요시설
 - 지상 1층 : 감만사랑방, 수유실, 네트워크실,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실, 기획경영실)
 - 지상 2층 : 부산문화재단(문예진흥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부산문화관 창작도서실, 도움방
 - 지상 3층 : 나눔방, 배움방 1·2, 세움방
 - 지상 4층 : 감만마을공작소, 틈움방 1~14, 샵위실
 - 지상 5층 : 어울림방, 틈움방 15~16, 단체연습실, 연습실, 샵위실, 대기실

34

전자아카이브 구축

부산의 문화예술을 전자아카이브에서 한눈에!

부산의 문화예술, 단체, 작품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부산 문화예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전자 아카이브 운영

- 2013년 신규 정보 총 2,375건(문화예술인 206건, 문화예술단체 148건, 문화예술작품 1,903건, 문화예술교육 105건, 문화예술시설 및 업체 등 13건) 등록
- 2013년 '인물스페셜' 12회 운영(음악, 연극, 문학, 미술, 사진, 영화, 무용, 전통 등)
- 2013년 과제용역으로 연극 분야 정보 총 206건(연극인 70건, 연극단체 37건, 공연장 31건, 연극 관련 학과 및 학술단체 7건, 주요 작품 등 61건) 등록

2,375 건

2013년 전자아카이브에 등록된 신규 정보

206 건

2013년 전자아카이브 연극 분야 과제용역에서 정리한 정보

35

부산문화포럼 운영

부산이 새로운 문화적 담론과 상상력을 나누는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발돋움합니다.

부산 지역 문화 현안에 관한 정책적·학술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간의 네트워크와 창의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4차례의 '부산문화 릴레이 포럼'과 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창작공간 담당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365 명

2013년 릴레이포럼에 참석한 부산 시민, 문화예술인, 학생

27 명

2013년 릴레이포럼에 참여한 발제, 토론, 사회자



부산문화 릴레이 포럼

• 1차 '예술: 시민과 소통하다' (8.20 / 8.27 / 9.3 / 9.10 / 9.24 카페 아슬란)
 '이야기카페'와 공동으로 기획한 1차 포럼은 시민과의 소통을 주제로 총 5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클래식 음악 속의 휴머니즘, 박물관, 서예와 전각예술, 우리소리, 연극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지역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2차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포럼 : 예술가, 즐겁게 살아남기' (8.21 자유바다소극장)
 '부산민예총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2차 포럼은 예술가가 즐겁게 활동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문화적 어소시에이션, 소셜유니온,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 전문가의 발제와 참가자들과의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생존방식에 대한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 3차 '대학 동아리, 소통을 통한 활성화 방안 찾기' (9.27 부산대 국제언어교육원 대강당)
 국제리더십학생협회 부산대 학생들과 함께 대학의 동아리 활동을 짚어보는 포럼을 기획하였다. 과거와 달리 비활성화되어가는 동아리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여 활동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4차 토론회 '부산 지역의 공공예술' (11.8 부산일보사 소강당)
 '소통과 창조를 위한 문화포럼'과 공동으로 부산 지역에서 점차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예술에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공공예술의 가능성과 부산 지역 공공미술에 대해 짚어 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지역문화캠프

• 지역문화재단과 창작공간 Network(12.13~14 감만창의문화촌)
 전년도 주제인 '지역문화와 창작공간, 레지던시'에 이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공간의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재단의 16개 창작공간의 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입주작가들이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2014년 공동사업안을 마련하였다.



36
공간기부뱅크

'비어있던 공간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공간 기부로 새로운 문화예술 순환 고리를 만들어 갑니다.

개인·기업·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기부받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부자·시민·예술가·매개자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문화 선순환 모델을 지향합니다. 2013년 기부받은 두 공간은 '청소년문화공동체 WA'와 '수화공연단 조용한수다'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현장 공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352  **m²**

2013년 기부받은 공간 규모

2013년 공간 운영

기부받은 공간	활용단체	활동
정다운약국 4층 유휴공간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161번지 4층(175m ²)	청소년문화공동체 WA	연극공연 준비, 한량무·대금·민요 수강, 숲속 작은음악회 및 폭력예방 총체극 희망세상 공연, 15개교 순회공연 진행 등
북천박물관 1층 강의실 부산시 동래구 북천동 50번지 북천박물관(177m ²)	조용한수다 수화공연단	수화 관련 교육 및 강습, 공연연습, 각종 프로그램 및 공연 기획, 유관 기관 정기 공연 등





0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 소외계층 초등학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
-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 ▶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 ▶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 ▶ 학교 예술강사 지원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37 —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일상을 예술로 꽃피우는 문화예술교육 허브를 만들어 갑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문화예술교육 자료 축적 및 홍보사업을 펼쳤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데이, 어린이아카데미, 문화예술교원 연수를 새롭게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BEAN방 운영사업 이용자 수



2013년 시민 아카데미 및 어린이 아카데미 참가자



2013년 전자아카이브에 등록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2013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문화예술교육 연수, 문화예술교원 연수,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 참가자



2013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통합교과형 문화예술교육, 뉴미디어아트 실험교실) 보급 운영 횟수



2013년 문화예술교육 연구모임 지원 단체



2013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웹진 발행



2013년 웹진 해외통신원 활동국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밀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데이>를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감만창의문화촌에서 개최하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전망',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품앗이 워크숍', '문화예술교육 자율연구 공개수업', '문화예술교육 연구 모임의 성과 발표', '문화예술교육의 새 지평, 융합과 창의' 5개 섹션의 워크숍 진행과 24편의 우수문화예술교육 다큐멘터리 상영, 네트워킹 디렉토리북 발간, 문화예술교육 라운지 및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시민 300여 명이 활발하게 소통·교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상·하반기 문화예술교육사업 자문위원회(5.29, 12.5)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아카데미> 사업이 추진되는 실질적인 성과도 가졌다.

8월에는 청송, 대구에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을 가졌으며, 경기·울산의 광역센터에서 부산을 방문하여 지역 간 정보 교류와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 광역센터 협의회(가칭) 구성을 위한 회의가 연중 2회(대전, 서울) 개최되었다. 2013년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재활용 문화예술교육단체(사)에코언니야 및 포항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폐현수막 기증 및 재활용 기념품 구입하고, 부산-포항 꿈의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를 갖는 등 협약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을 구현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학교 교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8월 5일부터 6일까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으로 풀어나가는 학교 현장 이야기>를 실시하여 56명의 교원이 수료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기획-심화과정(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운영)을 각 12강 58시수에 걸쳐 운영하여 전문 인력 31명이 수료하였다. 4월과 10월에는 각 3일간 문화예술행정아카데미를 개최하여 55명의 공무원이 수료하였으며, 자율연구모임 16개 단체를 지원하여 연구 결과물들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011년부터 개발해 온 <통합교과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내 6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적용하는 한편, 과학과 예술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목표로 <뉴미디어아트실험교실>을 부산시립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운영하여, 시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의 창의성 능력이 139%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지역 대학의 HK 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진행한 시민아카데미는

<세계 문화와 기행-보고, 듣고, 견고 1·II>(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 지중해 지역원, 동남아 지역원 공동주관), <변두리 인문학>(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점필재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동주관) 등 총 3회에 걸쳐 20차례 진행된 수업에 시민 570명이 참여하였다. 부산문화회관과 공동주관으로 어린이아카데미 <공연장 신사숙녀>를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28명이 유아 공연장 예절교육에 대한 현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문화예술교육 지식 정보화 및 홍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소통하였으며, 전자아카이브 DB 185건을 신규로 등록하였다. 웹진 <Bean's Story>를 매월 발행하여 3,000여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몽골, 스페인, 미국 등 9개국 11명의 해외통신원을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예술교육 현장 뉴스를 생생하게 웹진에 담아냈다. 센터의 문화예술교육 세미나실을 함께 공유하는 'Bean방 운영사업'은 972명이 이용하였다



38

소외계층 초등학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갑니다.

2010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했던 '무형문화재 전수단'이 2011년부터는 각 학교에서 상시로 문화예술교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산의 많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음악(부산농악), 연극(수영야류), 무용(동래학춤)에 특화된 지역의 문화재를 선정하고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교안을 개발하여 참여 강사에게 보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생한 현장학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운영된 방과후 문화예술교실(720시간)



2013년 방과후 문화예술포럼 참여 학생



2013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실이 진행된 초등학교(교육복지 우선 학교)



2013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실에 파견된 강사



2013년 수상사례 - 제14회 풍물·사물놀이경연대회 은상(범일초등학교), 동상(송도초등학교) 수상

주요 성과

- 총 12개 학교(부산농악 7개교, 수영야류 3개교, 가야초 3개교)에 24명의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27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수'와 '교육'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상·하반기 간담회 및 워크숍과 상·하반기 모니터링(24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과 피드백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 강사의 연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방과후 외부 강사 연수 기본과정(10.21~25, 10시간)에 참여하여 6명이 수료하여 교육의 질을 높였으며, 현장학습 강화를 위해 2회의 현장학습캠프를 개최하였다.
- 2011년도부터 꾸준히 지속한 결과 기존 2년 또는 3년째 지원받는 학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범일초, 송도초 제14회 풍물·사물놀이경연대회 은상, 동상 수상)를 거두면서 지속적인 지원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많은 관심 덕분에 4번에 걸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배우는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복남(모동초등학교 강사)

“운동회 때 초록색 잔디 위에서 하얀 학들이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이 마치 꽃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동래학춤을 구경한 학부모, 선생님과 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정적인 동작을 표현하느라 허리도, 다리도 아팠지만 인내심과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숙자(문현초등학교 교사)

39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3년, 부산 곳곳에서 1,319명의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46개 단체가 선정되어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013년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2013년 선정된 운영단체

2013년 계약강사



주요 성과

- 예산증액으로 총 3차례의 공모를 진행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도록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16개 구·군별 고른 지원으로 부산 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 일상적 사업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모니터링과 수시 현장점검에 주력하였으며, 시기별로 수행단체 간담회와 네트워크 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단체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단체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역량 강화 지원, 단체별 사업 홍보 공유, 특강 및 공개수업 공유 지원, 품앗이 워크숍 개최 등의 성과를 남겼다.

선정단체 및 내용

지역	학습대상	교육인원	교육수행 단체	사업
남구	일반	40	문화사업단 필인(1)	평화의 감만 브릿지(1)
금정구	일반	15	(사)남산놀이마당	금정산 고당할미와 만나는 우리소리 이야기
금정구	장애인	20	극단 자갈치	(사)푸른마을과 함께하는 연극 <부산바라기>
남구	일반	13	미디어리협동조합	미디어로 마을, 잇다
동구	노인	24	문화독해운동/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매죽지마을 <세대공감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동래구	일반	41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통통 시장통 예술학교
북구	노인	40	(사)아지무스오페라단	북구음악비타민 <아름다운 황혼, 실버라이어>
북구	일반	24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 사진을 꺼내들다
사상구	아동·청소년	30	사상문화원	연극 만들기를 통한 백양산 역사문화 들여다보기
사상구	일반	23	(주)부산노리단	지역청년들의 마을축제 워크숍 <주례에서 놀자>
사하구	일반	15	나눔수레	<젊은엄마,문학 속을 걷다!> -우리 엄마도 문학큐레이터-
서구	일반	46	미야아트댄스컴퍼니(1)	<두드림의 몸짓메아리> -푸르미를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제구	노인 외	29	부산울산경남무용교육원	Bravo, my Life - 인생 사용법
영도구	아동·청소년	17	영도문화원	다큐세대공감_ 아이들 영도할매를 만나다
중구	아동·학부모	23	부산판화가협회	꾸욱! 놀러새긴 역사탐험2- 역사와 미술을 연계한 BookArt 제작
해운대구	다문화	35	문화소통연대 이야기(1)	이주민 여성 대상 문화소통 프로젝트 <多情!다감! 엄마 나라 이야기>
기장군	일반	25	오픈스페이스 배	예술이 열렸네 - But Art
부산	일반	40	인디고 서원	청년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부산청년, 시대를 품다
수영구	일반	11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내 고장 전통문화유산 알기
남구	일반	20	문화사업단 필인(2)	평화의 감만 브릿지(2)
사상	일반	80	문화복지공동체 사상프린지	문화복지공동체 <우리동네 한바퀴>
금정구	일반	40	눈메 시각문화기획	<하늘물고기이야기>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힐링
금정구	일반	20	아트랩부산독립출판연구소	<2030인디북피에스타부산-독립출판의 불이 온다>



지역	학습대상	교육인원	교육수행 단체	사업
남구	일반	40	크래프트스토리-레인보우공작소	사랑해 프로젝트
수영구	일반	18	극단 사계	지역공간, 연극놀이터
진구	노인	21	극단 자유바다	나 둘러볼래! 그때 그시절!
진구	청소년	19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청소년 스마트 다크 프로젝트 <우리가 찍는다, 우리를 찍는다>
사상구	일반	24	미야아트댄스컴퍼니	두드림의 몸짓 메아리 -어깨동무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상구	청소년	24	함께	음악과 미술이 만나는 힐링프로젝트
사상구	일반	45	문화소통연대 이야기(2)	이주민 여성 대상 문화소통 프로젝트 <多情! 多감! 엄마 나라 이야기>
사하구	일반	30	(사)부산희망나눔	부산 문화와 소리- 사하주민들, 희망을 울린다.
사상구	노인	14	사)한국연극배우협회부산지회	다음 세대를 위한 무대 위의 실버 프로젝트 <나도 선생이다>
영도구	일반	30	동삼 희망	<행복더하기!> -우리 엄마 아티스트를 꿈꾸다-
기장군	해녀	24	온누리오페라단	뮤지컬 '마지막 해녀'
부산	일반	50	아트커뮤니티센터-라운	가족과 함께하는 도시 [건축+예술]산책 <도시樂-party>
사상구	일반	19	함께사는문화마을공동체	룰루랄라 음악이 넘치는 덕포
금정구	일반	24	연극놀이연구소(Asif)	「커뮤니티 씨어터」 교육 프로젝트 <우리동네>
금정구	일반	20	부산문화정책연구소	요산문화관과 함께하는 <금샘마을 도깨비를 찾아서>
강서구	일반	36	쑤제(SSOOZE 0.1)	잠들어 있는 강서, 자연으로 깨우다
중구	노인	15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실버씨네+북클럽: 여성노인, 예술하다!
동래구	노인	14	극단 아센	내 인생의 명작극장
중구	일반	15	북마실 교육 컨텐츠	<망양로> 문화마실
사상구	일반	69	(사)째즈클래식24	사상구 시민 오케스트라
북구	일반	20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구남 야시고개 문화이야기
사하구	일반	32	부산레이디싱어즈	사하 무지개공단, '플래시 몹'으로 무지개 띄우다
동구	노인	45	부산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음악체험교육을 위한 단계별 장르 체험교육

40 —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65명의 아동 · 청소년들이 음악적 재능과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호학습'과 '협력'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오케스트라 합주 활동을 통해 긍정적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부산의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는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시작과 함께 4년째 교육을 진행하여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펼치면서 다른 지역의 선배 오케스트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 진행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2013년 공연 횟수
성과발표회, 교류연주회 2회,
이음캠프 공동연주회, 합동공연, 오프닝 공연 2회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은 학생



2013년 <꿈의 오케스트라>에 함께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주요 성과

4년 차에 접어든 지속 사업으로 단원들의 연주 실력이 향상되고, 학부모 및 지역아동센터 등 수혜자 간의 커뮤니티가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 행사와 연계된 홍보를 펼쳐 지역의 주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단원	강사	기간	운영횟수
새로운 오케스트라와 만나요	65명	7명	2013. 3 ~ 2013. 5	(매주 수요일, 격주 토요일) 총 11차
클래식! 어렵지 않아요	65명	7명	2013. 5 ~ 2013. 7	(매주 수요일, 격주 토요일) 총 18차
영화 속 음악과 만나요	65명	7명	2013. 8 ~ 2013. 10	(매주 수요일, 격주 토요일) 총 15차
오케스트라와 놀아요	65명	7명	2013. 11 ~ 2013. 12	(매주 수요일, 격주 토요일) 총 13차
동절기 교육 프로그램	65명	3명	2014. 1 ~ 2014. 2	총 8차

41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전문 인력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삶 전반에 걸쳐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악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악강사가 파견된 학교
초등학교 189, 중학교 23, 고등학교 8



2013년 파견된 국악강사



2013년 국악강사가 진행한 수업 시수



2013년 학교방문예술단이 방문 공연한 학교



2013년 어린이 국악캠프 '풍류랑 놀자'에 참여한 학생

지원내용

강사 근로계약 체결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예술강사 교육활동 평가, 현장 방문점검 및 피드백, 국악강사 교과연구 모임 등을 통해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방문예술단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32개교를 방문하여 국악공연과 악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학교수업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린이 국악캠프 '풍류랑 놀자'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공연을 본다고 한다. 국악공연, 하지만 딱딱한 국악 대신 신세계 퓨전 국악이었다. 퓨전 국악은 우리 예술의 멋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전통국악이 아닌 퓨전국악도 우리 예술을 멋스럽게 꾸밀 수 있는 것 같다. 이 공연을 보고서 우리의 음악도 외국의 예술 못지않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퓨전국악은 멋지고, 예술적이며, 현대 문화에 걸맞고, 한마디로 아름답다. 가장 인상적인 악기 소리는 피리 소리다. 고음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국악에 취하게 하는 것 같다. 나도 한번 피리를 배워서 불러보고 싶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뽀로로와 친구들’을 연주한 것이다. 지금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부드럽게 현대식으로 곡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잘 아는 가요도 연주했는데, 그 곡 역시 인상이 깊게 남는다.”

윤건(연지초등학교 5학년)
‘학교방문예술단’ 방문공연 후기 중 발췌

42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술가가 우리 학교에 옵니다.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과 사고력을 키워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9개



219명



2013년 예술강사가 파견된 학교
초등학교 102, 중학교 89, 고등학교 38, 특수학교 10

2013년 파견된 예술강사

50,340시수



2013년 예술강사가 진행한 수업 시수

주요 성과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체결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신규강사 설명회, 학교담당교사 평가, 학생만족도 조사, 예술강사 평가, 예술강사 및 학교 현장방문점검을 진행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우리 학교 담당 이민우 예술강사님은 항상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수업 준비를 해 오십니다. 항상 철저한 준비로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을 진행하셔서 학생들도 동아리 시간만 기다릴 정도입니다. <부산청소년연극제>도 선생님의 연극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성심껏 지도하신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민우 선생님과 같은 분을 예술강사로 모시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극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재미있고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학생들이 신선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놀이로 연극을 배우면서 다양한 방식을 습득하고, 전체의 역량을 먼저 이끌어주시면서 각 개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려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양정원(담당교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후기 중 발췌



4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로 놀고 소통하는 토요일!

‘꿈다락’은 ‘나의 비밀스러운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예술이 펼치는 상상, 놀이가 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토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부산 곳곳에서 1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9개



2013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역의 단체

17,000여명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발표회(문화예술교육축제)에 참여한 시민

16,000여명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



주요 성과

다양한 전문 단체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 5일 수업제 실시 에 따른 주말 교육의 공백을 해소하였으며,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정하는 '2013 토요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11월에 개최된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결과발표회'를 통해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화예술교육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운영 전문화와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기별 간담회와 기획 워크숍, 현장 탐방 등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대상	운영단체
우리가 만드는 에코(echo) 스토리(story)	초등 전 학년 및 가족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미술아 놀자 - 숲속미술관	초등 전 학년	오픈스페이스 배
시네통(cine-通)	중등 전 학년	문화사업단 필인
토요 신나는 뮤지컬 여행	초등 전 학년	BS부산은행 조은극장
도시락 알콩달콩 가족뮤지컬	초, 중, 고 및 학부모	영도문화예술회관
청소년부산탐사보고서:부산을 찾다	중, 고등	미술관교육연구소 ARTO
노.춤.연.	초등 1~3학년	장르버라이어티 판
소통아!! 함께 놀자	초, 중, 고 및 학부모	(사)남산놀이마당
안녕 반가워,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	초등 4~6학년	(재)동양문물연구원
재미난 엔터테인먼트! G(금정)팝스타!!	중, 고등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인문학 멘토링 프로그램 '운명의 주인, 영혼의 선장'	중, 고등	인디고 서원
우리는 '찰방찰방' 예술단'	초, 중 전 학년 및 학부모	맨발동무도서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형성 및 소통 프로그램 'Rainbow Family'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	동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토요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다큐를 외쳐라)	초등 고학년 및 중등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하나가 되는 몸짓' 토요일문화학교	초, 중등 전 학년 및 가족	미야아트 댄스컴퍼니
꿈꾸는 다락방	초등 전 학년	희망세상
책과 함께 연극에 빠지다	초, 중등 전 학년 및 가족	부산문화연구회
hei-헤이-ye!-장애를 넘어 이해로, 예술과 함께	중, 고등	버텨
'오색찬란 샐러드 볼' 프로젝트	초등	(사)문화예술인적자원개발센터



“집에서는 활발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아이를 보며 속을 끓이기도 했었는데, 우연히 토요일문화학교를 알게 되어 그중에서 가장 호감이 갔던 뮤지컬 수업을 들으면 아이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반대로 오히려 낮을 더 가리게 되어 실망하고 포기하려던 차에 한 주, 두 주 거듭될수록 적극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아이 자체가 점점 활발해지는 모습에 역시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서서 책 읽기조차도 부끄러워했던 아이가 수업 마지막에는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1년간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강사님들께 어찌나 감사하던지. 이번 프로그램은 끝이 났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박가령(학부모)
 '토요 신나는 뮤지컬 여행' 수업 참가 학생 학부모

“시네통을 다니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고 조금씩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시네통에 처음 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어색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와 같은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찾아보고, 느낌이나 생각을 발표하기도 하고, 감정카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저의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난 뒤부터 저의 감정과 다른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서툴렀던 것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생각이 중요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김세형(장산중학교)
 '시네통' 1기~3기 참가자

44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예술 하시나요?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예술로 일하고 싶으신가요?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 창작능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을 활용하여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예술로 일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술인이 취업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술인 스스로 기획하고 배우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40 회



2013년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과정에서 진행된 강의

66 명



2013년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과정을 수료한 예술인

97 %



2013년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과정 수료율

88 %



2013년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강의 평균 출석률

주요 성과

예술인 대상의 취업·창작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매체·장르 융합형 기획자 양성 과정'과 '아트&퍼스널 브랜딩 과정' 두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체·장르 융합형 기획자 양성 과정'은 다양한 예술매체와 장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원적으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와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1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다. '아트&퍼스널 브랜딩 과정'은 예술가로서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자신과 작품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리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 강의에 35명의 예술인이 참여하였다.



06 국제문화교류 추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국제 레지던시 파견 자매도시 간 문학 교류

45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평화의 상징 조선통신사,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조선통신사 연구도시 사례포럼>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2013년에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2013년은 양국 간의 냉랭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 추진 원년으로 삼아 국제심포지엄과 닥종이 인형 전시 등을 개최하여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평화공존의 정신이 담긴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0

여명



2013년 조선통신사축제에 직접 참여한 시민과 일본인

347

점



2013년 소향회에서 기증한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닥종이 인형

84

명



2013년 역사아트캠프에 참가한 학생

9

명



2013년 조선통신사 연구도시에 파견된 예술인



新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 연구지역에서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예술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미술·무용·도예·전통·영화 분야 예술인 9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구지역(쓰시마, 오사카, 도쿄, 사가현, 히로시마)에 파견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학생 84명을 선발하여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의 도모노우라 교류회(판소리 공연, 전통무용공연 등)와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고, 홈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조선통신사 관련 유물을 관람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3 조선통신사 축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행사의 하나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개최되어 온 조선통신사 축제가 2013년에는 평화의 행렬, 통신사야 놀자, 국제 학술심포지엄, 조선통신사의 밤, 한일 뮤직콘서트, 거리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각 프로그램에는 일본 참가자 300여 명을 비롯하여 총 3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28만여 명이 관람하였다.

한일네트워크사업

'키타큐슈 왓쇼이 백만 여름 축제'(8.3~4), '시모노세키 바칸 마쓰리'(8.3~4), '후쿠오카 아시아 태평양 페스티벌'(10.12~15), 시모카마가리 조선통신사 재현행렬(10.20), '세토우치 조선통신사 연구지 전국 교류대회' 등 일본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교류공연을 펼쳐 다양한 양국 간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학술 및 홍보

조선통신사축제 기간 중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연구도시 협력 행사와 히로시마 심포지엄(2월), 나가사키 전시·심포지엄(10월)에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통신사 소식지를 계간으로 발행하여 조선통신사와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조선통신사란?

-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자 일본 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공식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고 한다. '통신'이란 '신의를 나눈다'는 의미로 조선통신사를 통한 교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 일본의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번에 걸쳐 도쿠가와 막부의 경사나 소군의 계승이 있을 때마다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의 국서를 전달하고 도쿠가와와 소군의 답서를 받아 오는 것이 주 임무였다. 제2회(교토) 및 12회(쓰시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도(현재의 도쿄)까지 왕복하였고, 제4회부터 6회까지는 닛코에도 방문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 조선통신사는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총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으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출발하여 일본의 수도인 에도까지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여정을 왕래하였다. 긴 여로의 곳곳에서 일본의 많은 문인들과 필담을 나누고 노래와 술잔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한 조선통신사는 일본 민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일본 문화 및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200여 년간은 양국 간 전쟁이 없었으며, 국경을 인접한 국가 간에 이토록 오랜 기간 전쟁이 없었던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좋은 사례로 조선통신사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46 국제 레지던시 파견

지역에서 최초로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으로 세계를 향한 부산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창작활동과 해외진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의 레지던시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아시아 지역 레지던시 지원에서 2013년도에는 대상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극·무용·전통예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5개 팀이 선발되어 프랑스, 미국, 미얀마, 베트남, 터키에서 새로운 창작활동의 가능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아왔습니다.

30

명



2013년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에 참여한 예술가

5

개



2013년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국가



5개 프로젝트 성과

- 미얀마 <Touch : Myanmar & Korea Art Exchange Project in New Zero Art Space> 7.8~8.4
정만영(설치), 서준호(기획), 정찬호(조각), 이창진(조각), 변대용(조각), 송성진(설치), 강상훈(기자), 박주현(조각) 작가가 참여하여 현지 단체인 Organized by New Zero Art Space & O'New Wall 과 함께 아티스트 워크숍, 오픈 워크숍,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 인도 <'보울 Bowl' 한국과 인도 전통 가무악의 창조적 만남> 8.2~9.8
변영미(무용), 주혜자(연출), 허경미(무용), 류재철(전통), 양효윤(연기) 작가가 참여하여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레지던시 이노그레이션(합동 고사), 한국·인도 창작 가무악 리허설과 공연, 한국 전통문화 체험 워크숍 및 가무악 공연, 인도 전통문화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 베트남 <Zero waste, UPcycling! '모든 사물이 음악이 될 때'> 8.21~9.23
버려진 쓰레기와 주변의 사물로 만든 악기와 오브제로 공연을 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축제의 과정을 담은 프로젝트로 박태주(기획), 윤주현(조형), 김보민(영상), 박현주(퍼포먼스), 이동조(기획) 작가가 참여하여 현지의 제로스테이션 연계 프로그램과 주민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프랑스 <다양한 장르의 국제 문화예술 교류> 9.16~10.12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현(회화), 강은정(설치) 강태우(회화·라이브 페인팅), 박현정(국악/가야금), 조성백(조각·퍼포먼스아트), 윤도영(사진) 작가가 참여하여 작품과 국내 공간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STO 비영리 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거문고 공연, 거리 퍼포먼스, 양국 문화예술소개 워크숍 등을 펼쳤다.

- 미국 <ASTO 레지던스 협력 프로그램 진행 및 해외 레지던스 개발을 위한 리서치> 10.14~11.2
부산 지역 작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김미애(설치), 전해연(기획), 김정민(조각), 김종선(설치), 이창운(조각), 황지희(미디어) 작가가 참여하여 ASTO 비영리 재단과의 연계 프로그램과 현지 워크숍, 미술관 탐방, 작가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47

자매도시 간 문학 교류

나오키상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였던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가 사망하자 문예춘추(文藝春秋)에서 그의 대중문학의 선구적인 업적을 기려 1935년 제정한 상으로 대중문예의 신진작가 가운데 우수한 소설·희곡 작품을 발표한 자를 가려 상·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7월, 1년에 두 차례씩 시상한다. 아쿠타가와상과 더불어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다.

출판물 『화염의 탑』

중세 일본 남북조시대의 무장 오우치 요시히로의 일대기를 담은 책으로, 주인공은 한낱 시골 호족에서 당시 일본 중심인 교토에 진출하며 당당히 백제의 후손임을 밝혔던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오시히로가 백제 후손을 자처하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와의 교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점 등 오우치 요시히로의 삶에 주목하였으며, 장대한 꿈을 안고 죽음을 맞이한 오우치 요시히로의 생애를 통해 일본 무사도의 정신세계와 함께 칼끝에 영혼을 담은 일본 봉건 시대 무장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문학으로 깊어지는 자매도시 간 교류

2011년 <한·중·일 포럼 문풍(文風)>에 참석했던, 자매도시 일본의 시모노케키시 출신의 후루카와 가오루 작가(‘나오키상’ 수상)가 문학을 통한 자매도시 간 교류에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2012년 후루카와 작가의 작품 중 『화염의 탑』을 국내에 출판하기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번역 작업을 거쳐 2013년 5월 <2013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한국판 출간을 맡은 부산의 출판사 산지니에서 국내 출판 인세와 일부 출판비를 기증하기로 하여 자매도시 간 교류에 힘을 더했습니다.



문학 교류사업을 위해 부산과 시모노케키시 담당자가 진행한 실무 회의

『화염의 탑』한국판 2013년 판매 부수 증정 및 홍보용 228권 제외

주요 성과

자매도시 간 문학 교류를 위해 2012년 8월 시모노케키에서 출판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5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2013년 5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출판 취지에 맞춰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자와 일본 출판사가 국내 출판에 따른 인세 수식을 포기하고, 국내 출판에 따른 출판 수익의 일부를 재단 발전기금으로 기부받아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재단과 부산 시내 대형 서점, 부산 지역 출판사가 상호 협력하여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출판 업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07 위탁운영 및 대외협력

-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 운영
- 부산문화재단 시민 서포터즈 운영
- 부산문화재단 후원 활성화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48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 운영

전국 유일의 조선통신사 콘텐츠 역사관

2011년 4월 21일 개관한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2013년 마련한 첨단 멀티미디어 역사 교육관을 통해 역사교실과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등 시민이 조선통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조선통신사 역사관 방문객
학생 12,412, 일반 14,228, 외국인 1,396

주요 프로그램

- 토요역사교실(3.2~6.29, 9.7~11.31 토요일) : 초등학교 424명 참여
- 조선통신사를 만나다(3.23~4.6) : 조선통신사와 부산에 관한 강좌와 탐방, 중·고생 114명 참여
- 문화전승 1일 체험학습 : 교육청과 연계한 체험 활동, 중학생 143명 및 고등학생 157명 참여
- 조선통신사를 만나다(12.19~20) : 유적지(밀양, 안동) 탐방 및 강좌, 시민 35명 참여
- 영화제
 - 3D 영화제(1.22~3.3) : 겨울방학 3D 영화 72회 상영, 2,243명 관람
 - 명작애니메이션 페스티벌(7.2~8.31) : 여름방학 명작애니메이션 100회 상영, 3,847명 관람
 - 눈길영화제(12.17~29) : 눈·크리스마스 영화 24회 상영, 920명 관람



49

시민 서포터즈 운영

부산 문화현장에 씨즈닝(SEAZNING : 시민서포터즈+ING)이 달려갑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 '씨즈닝'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현장평가와 문화행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시민 서포터즈



2013년 시민 서포터즈가 진행한 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 및 전시 현장평가



2013년 시민 서포터즈가 제출한 현장평가서



주요활동

2010년 1기부터 시작된 씨즈닝은 2013년 97명을 선발하여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종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중간·연말 평가회, 워크숍을 진행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재단의 주요 사업과 문화행사 홍보와 참여를 통해 시민과 재단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50 부산문화재단 후원 활성화

세답족백(洗踏足白),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하였더니 제 발이 희어진다는 고사성어로서 남을 위해 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마다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신다면, 제대로 된 수준 높은 부산의 공연과 작품을 보고 싶다면 시민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한 관심은 결국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문화재단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쓰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후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후원자를 발굴·모집하여 시민, 기업과 예술인, 예술단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 곳 

2013년 홍보 활동 지역 우수기업 방문 및 후원 홍보물 발송

100 명 

2013년 부산문화 후원감사의 밤 <집들이야>(12/26,감만창의문화촌)에 초청한 후원그룹

35 명 

2013년 개인후원자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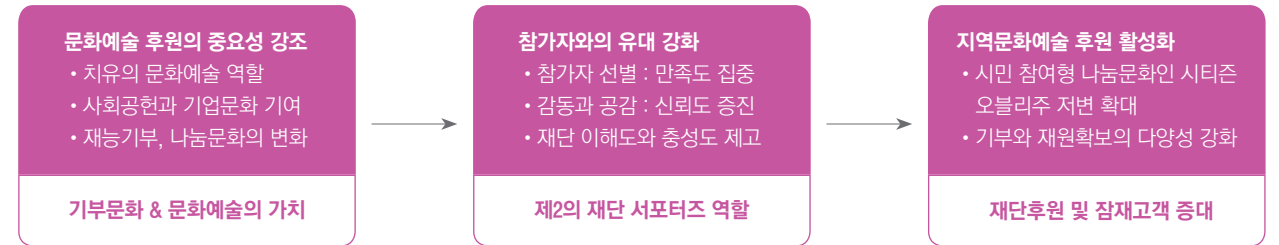
7 건 

2013년 지정기부 참가자 및 기업현황 메세나사업 참가제외

380,074,492 원 

2013년 지정기부금 및 개인후원금 총액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후원회원 종류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만 ~ 50만 원 정액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 기관 · 법인 · 기업대상 1,0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개인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홍동식 후원자 등 35명 가입
- 총 2,988,492원(예금이자 포함)

지정기부금 현황

총 377,086,000원(메세나사업 기부금 제외)

- 송순임 부산광역시 시의원 10,000,000원
- 롯데쇼핑 부산점 20,000,000원
- 누네빛안과 10,000,000원
- 부산은행 3,000,000원
- 케이엘메탈 14,000,000원
- 신세계사이먼 부산점 300,000,000원
- SPA엔터테인먼트 20,086,000원



51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역문화 분권을 위한 공동대응과 타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부산 및 다양한 지역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문화 발전과 상생을 위해 재단의 경영비전과 연계성이 높은 다양한 단체와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문화연구회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 위탁 협약(1.2)

주택관리공단
문화이용권 사업 효율성 증진 관련 상호협력 업무 협약(2.14)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문화이용권 사업 상호협력 업무 협약(2.22)

YKSTEEL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후원협찬 협약(3.25)



산지니출판사
자매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 출판 관련 협약(3.29)

누네빛안과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 후원 협약(4.12)



(재)부산복지개발원
문화복지 확산을 위한 상호 공동 협약(5.14)



부산시립예술단노동조합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 협약(5.29)



락인코리아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5.31)

에코언니아
자원 재활용과 폐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 협약(6.19)



사상구, 부산노리단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 협약(7.5)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문화이용권 사업 및 문화복지 이해 확산을 위한 협약(7.19)

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관련 상호 협력(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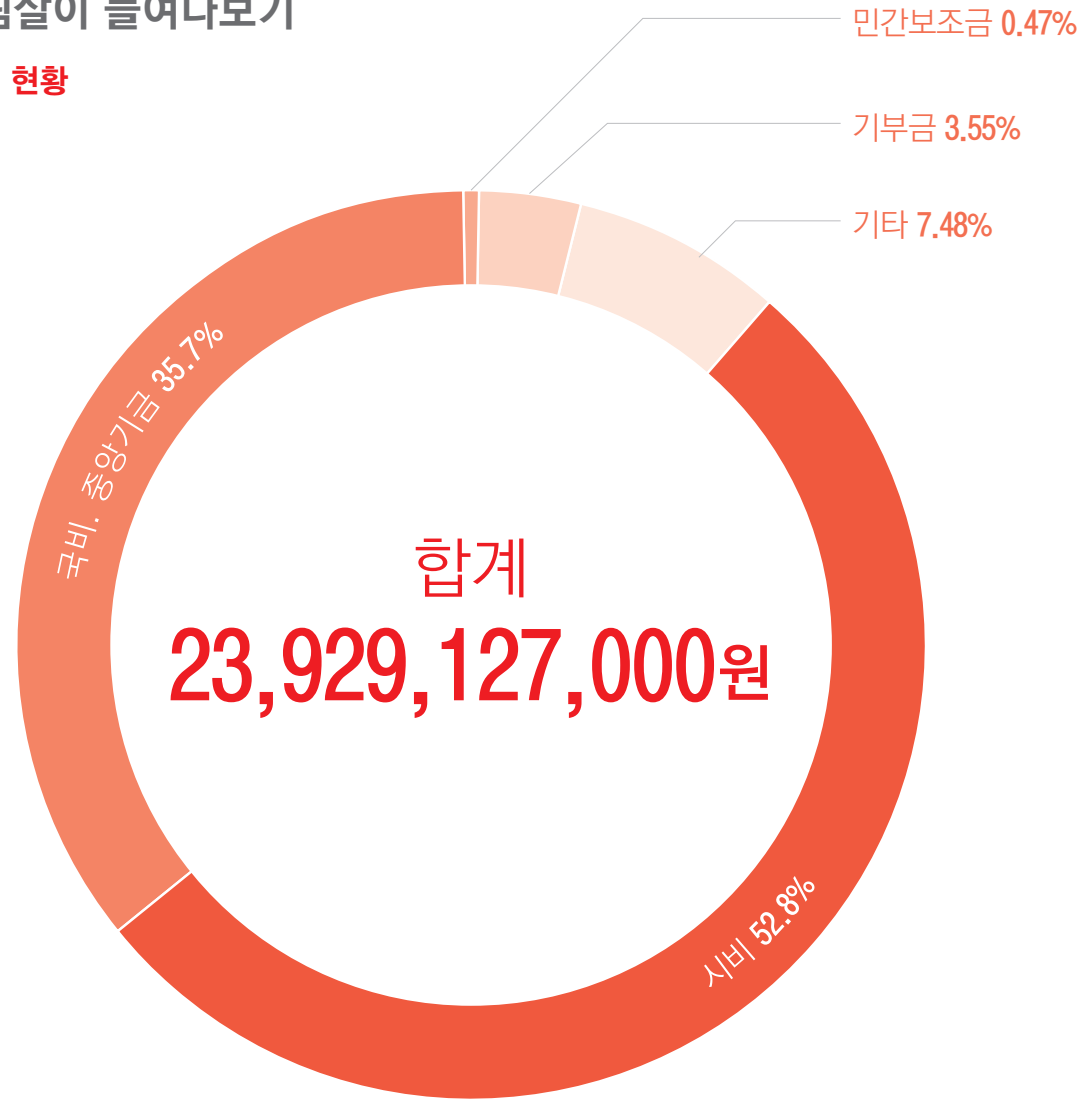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문화경영'에 관한 상호 협약(9.2)

12개 시도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전국 문화예술지원기관 간 상호 업무 협약(11.21)



재단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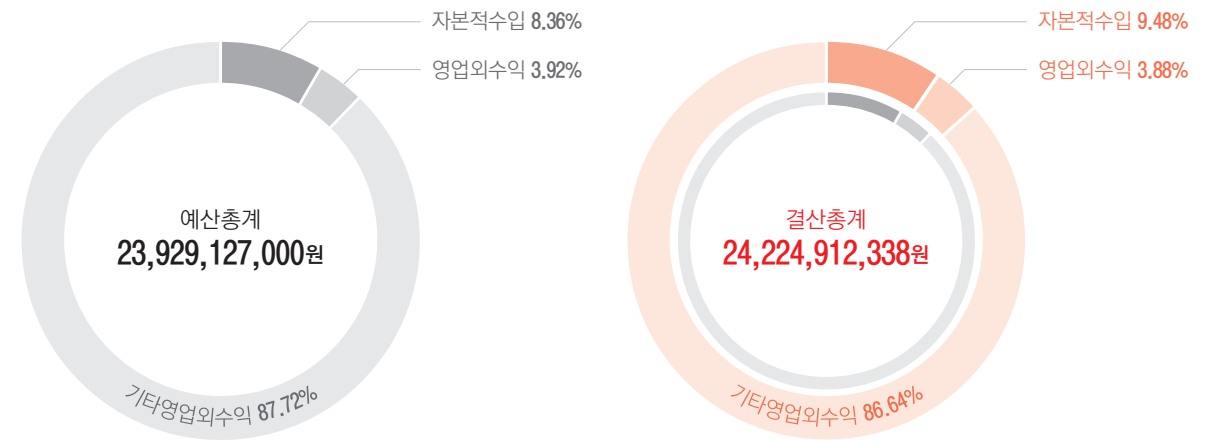
2013년 재원 현황



2012년 사업별 재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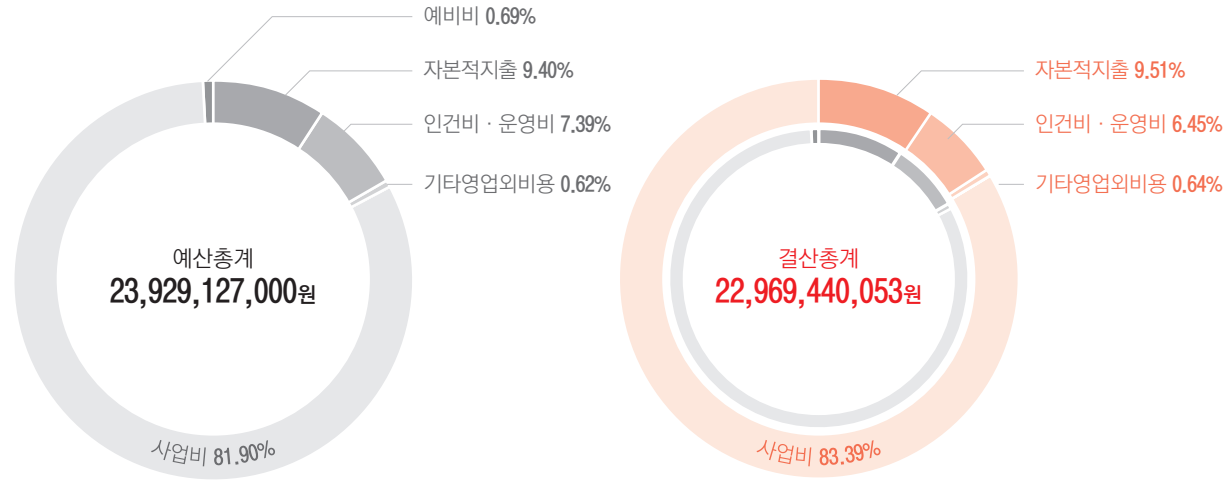
구분	예산액(원)	구성비율
시비	12,632,870,000	52.8%
국비·중앙기금	8,544,460,000	35.7%
민간보조금(구비-중구, 교육청)	113,000,000	0.47%
기부금	850,500,000	3.55%
기타(광고료, 잉여금, 이자, 후원 등)	1,788,297,000	7.48%
합계	23,929,127,000	100.00%

2013 세입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결산	
	금액(원)	구성비율	금액(원)	구성비율
총계	23,929,127,000	100.00%	24,224,912,338	100.00%
자본적수입	2,000,000,000	8.36%	2,296,000,000	9.48%
출연금	2,000,000,000	8.36%	2,296,000,000	9.48%
영업외수익	937,582,000	3.92%	939,947,947	3.88%
예금이자	40,000,000	0.17%	81,026,780	0.33%
적립금이자	897,582,000	3.75%	858,921,167	3.55%
기타영업외수익	20,991,545,000	87.72%	20,988,964,391	86.64%
출연금	1,611,000,000	6.73%	1,611,000,000	6.65%
위탁사업비	13,485,490,000	56.36%	13,485,490,000	55.67%
민간경상보조금	4,193,840,000	17.53%	4,183,639,100	17.27%
기부금	850,500,000	3.55%	835,500,000	3.45%
광고수입	47,600,000	0.20%	47,600,000	0.20%
2012 후원금	1,016,000	0.00%	1,016,000	0.00%
순세계잉여금	652,453,000	2.73%	652,452,385	2.69%
법인세환급금	133,646,000	0.56%	152,082,890	0.63%
지원금반환금	15,000,000	0.06%	14,513,275	0.06%
잡수입	1,000,000	0.00%	5,670,741	0.02%

2013 세출내역



* 결산은 당년도 결산수치만을 반영(전년도 이월금 미포함)
* 기부금은 기업체 지정기부금임

예산과목	예산액		결산	
	금액(원)	구성비율	금액(원)	구성비율
총계	23,929,127,000	100.00%	22,969,440,053	100.00%
자본적지출	2,249,516,000	9.40%	2,184,558,610	9.51%
자본적지출	2,249,516,000	9.40%	2,184,558,610	9.51%
기타투자자산	2,001,016,000	8.36%	2,001,016,000	8.71%
자산취득비	248,500,000	1.04%	183,542,610	0.80%
사업비용	21,515,323,000	89.91%	20,784,881,443	90.49%
인건비·운영비	1,768,791,000	7.39%	1,481,942,533	6.45%
기타영업외비용	148,302,000	0.62%	147,837,911	0.64%
보조금반환	131,302,000	0.55%	130,837,911	0.57%
기부금	17,000,000	0.07%	17,000,000	0.07%
사업비	19,598,230,000	81.90%	19,155,100,999	83.39%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	50,000,000	0.21%	49,900,000	0.22%
조선통신사 한일문화 교류사업	911,100,000	3.81%	856,292,893	3.73%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운영 사업	220,000,000	0.92%	202,499,218	0.88%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 활동 지원	90,000,000	0.38%	90,000,000	0.39%
문화포럼 사업개최 지원	12,000,000	0.05%	12,000,000	0.05%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지원사업	600,000,000	2.51%	586,297,410	2.55%
청년문화 집중지원사업	520,000,000	2.17%	486,088,873	2.12%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200,000,000	0.84%	199,983,330	0.8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운영	663,000,000	2.77%	660,646,100	2.88%
레지던스 운영활성화 지원	200,000,000	0.84%	200,000,000	0.87%

예산과목	예산액		결산	
	금액(원)	구성비율	금액(원)	구성비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2,197,000,000	9.18%	2,171,416,680	9.45%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300,000,000	1.25%	285,030,553	1.24%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227,750,000	0.95%	227,684,280	0.99%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849,557,000	7.73%	1,849,557,000	8.05%
문화나눔 사업	100,000,000	0.42%	86,422,530	0.38%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60,000,000	0.67%	156,600,000	0.68%
달리는 부산문화 사업	100,000,000	0.42%	97,695,220	0.43%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	793,500,000	3.32%	765,469,750	3.33%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	70,000,000	0.29%	67,696,750	0.29%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	840,000,000	3.51%	840,000,000	3.66%
부산사랑티켓 운영지원	160,000,000	0.67%	160,000,000	0.70%
문화이용권 사업	4,626,000,000	19.33%	4,626,000,000	20.14%
토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90,000,000	0.38%	88,957,720	0.39%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지원	150,000,000	0.63%	148,015,100	0.64%
소외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	84,000,000	0.35%	84,000,000	0.37%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211,023,000	9.24%	2,211,023,000	9.63%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521,000,000	2.18%	521,000,000	2.27%
도시철도 북 하우스 운영사업	130,000,000	0.54%	122,709,340	0.53%
부산문화재단 시민 서포터즈 운영	10,000,000	0.04%	8,468,880	0.04%
지역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50,000,000	0.21%	49,983,260	0.22%
부산문화재단 후원활성화 사업	20,000,000	0.08%	17,990,810	0.08%
문화거버넌스 구축사업	20,000,000	0.08%	7,846,430	0.03%
문화예술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0,000,000	0.17%	19,638,240	0.09%
전자아카이브 구축사업	30,000,000	0.13%	28,686,760	0.12%
부산문화포럼 운영사업	20,000,000	0.08%	11,770,060	0.05%
국제 레지던시 파견사업	100,000,000	0.42%	96,624,612	0.42%
부산문화재단 계간지 발간	80,000,000	0.33%	67,223,240	0.29%
부산문화재단 온라인 홍보	20,000,000	0.08%	9,627,970	0.04%
전산인프라 구축	21,300,000	0.09%	9,614,500	0.04%
나눔을 통한 예술영재 프로젝트 The SHARP	5,000,000	0.02%	0	0.00%
자매도시간 문화교류사업	5,000,000	0.02%	5,000,000	0.02%
일상에 스미는 생활문화사업	200,000,000	0.84%	152,183,500	0.66%
문화다양성 확산위한 무지개다리사업 '다섯손가락'	200,000,000	0.84%	188,208,020	0.82%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71,000,000	0.30%	59,388,700	0.26%
감만창의문화촌 관리운영사업	300,000,000	1.25%	243,219,320	1.06%
지역인문학 활성화 지원사업	30,000,000	0.13%	26,640,950	0.12%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사업	300,000,000	1.25%	300,000,000	1.31%
예비비	164,288,000	0.69%	0	0.00%
예비비	164,288,000	0.69%	0	0.00%

감사합니다.

2013년 부산문화재단에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13년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

강민선 님, 권진주 님, 김경화 님, 김규원 님, 김동명 님, 김미자 님, 김복경 님, 김순아 님, 김영수 님, 김희은 님, 박무성 님, 박상미 님, 박세은 님, 배정일 님, 송귀석 님, 송준용 님, 심창신 님, 안세운 님, 안현아 님, 육현정 님, 윤경화 님, 윤성진 님, 윤한오 님, 이동광 님, 이은실 님, 이정애 님, 이종걸 님, 이 지나 님, 정경수 님, 정진경 님, 조예슬 님, 조준형 님, 최명애 님, 홍동식 님, 황성백 님

| 2013년 부산문화재단 시민 서포터즈 '씨즈닝' |

강민주 님, 강민지 님, 고지원 님, 구홍서 님, 권강인 님, 권자양 님, 권정숙 님, 김근형 님, 김병국 님, 김아람 님, 김아름 님, 김영희 님, 김은영 님, 김정미 님, 김정은 님, 김종완 님, 김지영 님, 김지현 님, 김진현 님, 김태우 님, 김홍엽 님, 남기영 님, 모현호 님, 문성민 님, 박상언 님, 박선주 님, 박인순 님, 박진옥 님, 박현정 님, 배수영 님, 배정애 님, 배혜진 님, 서경이 님, 설지현 님, 설현중 님, 손민경 님, 송지택 님, 신영주 님, 안유미 님, 안현조 님, 양화니 님, 여민순 님, 윤평애 님, 윤원규 님, 윤혜진 님, 이경옥 님, 이경춘 님, 이다애 님, 이사라 님, 이상우 님, 이상희 님, 이수미 님, 이수아 님, 이승연 님, 이아름 님, 이윤정 님, 이재숙 님, 이정희 님, 이주영 님, 이지은 님, 이혜영 님, 임 경 님, 임미소 님, 임한나 님, 장수연 님, 전보라미 님, 전은정 님, 정미경 님, 정우임 님, 정윤하 님, 정지영 님, 정현주 님, 조수아 님, 진슬기 님, 최여진 님, 최영애 님, 한숙이 님, 황은경 님

| 2013년 문화나눔 자원봉사단 '별무리' |

강성순 님, 강정아 님, 고용현 님, 김경진 님, 김관후 님, 김광수 님, 김상현 님, 김수현 님, 김승희 님, 김신지 님, 김정남 님, 김태현 님, 마정련 님, 문수원 님, 박선미 님, 박소라 님, 박영미 님, 박은지 님, 박형규 님, 변수정 님, 서동숙 님, 설재림 님, 심순정 님, 오정현 님, 이국진 님, 이동순 님, 이선명 님, 이아름 님, 이혜미 님, 전용미 님, 정다영 님, 정순덕 님, 조선경 님, 조혜인 님, 조희숙 님, 주진주 님, 최광식 님, 최남희 님, 최명순 님, 최유하 님

| 2013년 메세나활성화 기부 |

국립피엔텍 노왕기 대표님, 남양모방 이용문 대표님, 노블리아산업개발 강재경 대표님, 뉴스타시큐리티 김병원 대표님, 대한제강 오형근 대표님, 동인테크 권일우 대표님, 두모씨앤씨 강석환 대표님, 롯데쇼핑 신현 대표님, 리엔김마린스 이종호 대표님, 보성기업 황종길 대표님, 블루컴 이상민 대표님, 비에스종합건설 이현수 대표님, 세인홀딩스 김정원 대표님, 세호테크 박인식 대표님, 알엠앤에코 김규진 대표님, 알텐바흐코리아 이명호 대표님, 예진엔지니어링 박홍찬 대표님, 우리디지털 조영운 대표님, 울산서비스 조성박 대표님, 웨이버스 김학성 대표님, 웹케시이노밸류 윤원수 대표님, 유한미네랄 솔트 명정필 대표님, 의료법인 SDL 의료재단 김근하 대표님, 이푸스포츠 김성진 대표님, 조광요턴 양창호 대표님, 중산기업 정광수 대표님, 진행위터웨이 심학섭 대표님, 케이 아이알 최성재 대표님, 태양열처리 정영무 대표님, 파낙스이텍 변준석 대표님, 화승 이종석 대표님, 회창물산 권중천 대표님, KS세무법인 신창호 대표님

| 지정기부 |

누네빛안과 류규원 원장님, 박효순 원장님, 롯데백화점 신현 대표님, 부산은행 성세환 은행장님, 시티캡 정현돈 대표님, (주)신세계사이먼 강명구 대표님, YK STEEL 오오미치히데타카 대표님

| 공간기부 |

북천박물관 하인수 관장님, 정다운약국 정유진 약사님

20
13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BUSAN CULTURAL FOUNDATION
ANNUAL REPORT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608-80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www.bscf.or.kr T. 051-744-7707 F. 051-744-7708~9

본 실적보고서는 비매품이며 내부 자료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ISBN 978-89-965298-6-6